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MAGAZINE

KOICA

2026 VOL.9

ALL FOR | ONE | FOR ALL



커버스토리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인터뷰

기획 특집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
구축하는 코이카

에세이
분쟁 현장에서 배운
'평화의 의미'

카툰
만화로 보는
통합 ODA





06



10

READER'S LETTER

05 **"MAGAZINE KOICA에 할 말 있어요!"**
독자 목소리

ODA TRENDS

06 **아프간 여학생 교육 공백, 미래도 멈춘다**
개발협력 분야 글로벌 동향

SPECIAL THEME **개발협력의 미래,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

10 **"분절화된 ODA 넘어 성과 중심 통합 원조로"**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인터뷰

16 **제4차 기본계획이 그리는 한국 ODA의 미래**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에서 AI ODA까지

18 **코이카 프로그램과 플랫폼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
문상원 코이카 사업전략기획실장 기고

20 **'코이카 프로그램'이 여는 새로운 개발협력**
교육·보건·기후위기 대응을 하나로

22 **통합 플랫폼으로 달라지는 공공협력사업**
신속하게 검증하고 더 크게 확장한다

24 **맞춤형 날씨 정보 제공… 페루 농촌 바꿨다**
Q-DEEP에서 본사업까지

26 **'따로'가 아닌 '함께', 통합 ODA의 힘**
만화로 보는 통합 ODA

28 **연수사업도 코이카가 묶는다**
이제는 한 팀으로

REGULAR FEATURES

30 **'코이카' 삼행시로 만나는 국제개발협력의 가치**
독자 이벤트 당첨작

32 **병원 건립부터 박물관 설계까지, 개발협력 성공의 순간들**
코이카 35년을 일군 베테랑 3인 인터뷰

36 **희망의 씨앗, 변화와 성장의 결실**
창립 35주년 기념 '코이카 10대 뉴스'

38 **한국 알리기 넘어 협력국 역량 강화로… 문화 ODA**
문화로 여는 지속 가능한 미래

40 **개발협력 패러다임 바꾸는 AI ODA**
이제 원조도 인공지능으로 한다



32

42 “국제사회가 협력해 개도국 AI 접근성 높여야”
2026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48 기업도 배우고 연수생도 성장한다
코이카 기업-연수 연계 실습 프로그램

50 코이카 입사 노하우가 궁금하다고요?
한국 ODA 새로운 35년의 문을 열다, 신입사원 4인 인터뷰

54 “우정의 이름으로 개발협력의 길 함께 걷다”
아르켄 아리스타노프 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 전 이사장 기고

56 분쟁 현장에서 배운 ‘평화의 의미’ 일상의 안도감과 삶을 재건하는 회복력에 대해
김선영 코이카 인도지원처 분쟁취약지원팀 대리(젠더전문관) 기고

58 ‘빠니보틀’과 르완다 새마을운동 현장을 가다
정승필 코이카 르완다사무소 코디네이터 인터뷰

KOICA NEWS

60 한눈에 보는 코이카 이슈

CLOSING REMARKS

66 대한민국의 새로운 ‘통합 ODA’를 향해
김동호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



42


50


58


56

독자 목소리

“MAGAZINE KOICA에 할 말 있어요!”

국제학을 공부하면서 이론적인 부분만 접하다 보니 가끔 지치기도 했는데 수혜자분들의 생생한 스토리 기사를 읽을 때마다 내가 왜 이 공부를 시작했는지 초심을 되찾게 돼요.

지면의 분량이 너무 과하지 않고 핵심적인 주제들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부담 없이 읽기에 아주 적당합니다. 앞으로도 늘 새로움을 주는 매거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파견 인력이나 코이카 직원분들의 시선에서 쓴 기사들도 흘륭하지만, 가끔은 도움을 받는 현지 주민들이나 함께 사업을 이끌어가는 현지 파트너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코이카 봉사단, 인턴, 글로벌 서포터스 ‘위코’ 등이 실제로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이후 진로와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인터뷰 형식으로 깊이 있게 다뤄주세요.

지구촌 공동체의 상생 번영이라는 거대 담론을 일반 대중이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사례와 연결지어 풀어내는 기획력이 돋보입니다.

국내의 우수한 청년 스타트업들이 개발한 첨단기술이 어떻게 개발도상국의 보건·식수 문제 등을 해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칼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대륙과 국가의 고유한 역사 및 문화를 소개하는 인문학적 코너가 보강된다면 개발협력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국 글로벌 리더들이나 현지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인터뷰 콘텐츠는 평소 다른 매체에서 접하기 힘든 귀한 내용이라 매번 정독하며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립니다
MAGAZINE KOICA VOL.9를 읽고 느낀 점이나 바라는 점, 그밖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늘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여 더 나은 MAGAZINE KOICA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은 VOL.10 독자 목소리 페이지에 게재해 드리고 음료 교환권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 의견 보내주실 곳: press@koica.go.kr**
QR코드로도 의견을 보내주세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학교에 가야 할 어린 소녀가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개발협력 분야 글로벌 동향

아프간 여학생 교육 공백, 미래도 멈춘다

아프가니스탄 여성 교육 제한에
미래 전문 인력 고갈 우려

유니세프(UNICEF)는 아프가니스탄의 여학생 교육 제한이 장기적으로 교사와 보건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21년부터 중등교육 이상 과정에서 여학생의 교육 참여가 제한되면서 현재까지 약 220만 명 이상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니세프는 현재의 여학생 교육 제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향후 여성 교사와 여성 보건인력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문화적 이유로 여성 환자가 여성 의료진의 진료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 전문 인력 부족은 보건서비스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니세프는 아프가니스탄의 여학생 교육 공백이 미래 노동력과 공공서비스 체계에 미칠 영향을 주목해야 하며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120만 로힝야 난민에
7억 달러 규모 지원 요청

유엔난민기구(UNHCR)는 방글라데시 내 로힝야 난민과 수용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7억 1,050만 달러 규모의 재원 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했다. 지원 대상은 약 120만 명의 로힝야 난민과 수용 지역사회로, 이번 요청 규모는 전년 대비 약 26% 감소한 수치다. 로힝야 난민 위기는 2017년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미얀마 군경이 로힝야족을 탄압하는 사태 이후 장기화하고 있다. 당시 약 75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으며, 2024년 이후 미얀마 내 분쟁이 재확산되면서 약 15만 명이 추가로 유입됐다.



세계식량계획이 재원 부족으로 시리아 내 긴급 식량 지원 규모를 약 50% 축소했다.

특히 2025년 안다만해와 벵골만을 통한 로힝야 난민의 해상 이동 과정에서 약 900명의 실종자 및 사망자가 발생했다. 유엔난민기구는 글로벌 인도주의 재원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식량·보건·보호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지원 확보를 촉구했다. 유엔난민기구는 "로힝야 난민들의 존엄한 귀환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로힝야 난민과 난민을 수용한 지역사회를 계속해서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계획, 원조 재원 부족해
시리아 식량 지원 절반 줄여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자금 부족으로 시리아 내 긴급 식량 지원 규모를 기존 130만 명에서 65만 명으로 약 50% 축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300여 개 제빵소를 지원하던 빵 보조금 프로그램도 중단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취약지역 약 400만 명에게 저렴한 빵을 제공해왔다. 현재 시리아에서는 720만 명이 식량 불안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160만 명은 위기 수준의 식량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원 축소가 재원 부족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속적인 재정 관련 제약으로 지원 대상 지역도 기존 14개 주에서 7개 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주요 공여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축소가 이어지면서, 시리아는 국제 원조 감소가 식량 지원과 사회안전망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2026년 하반기까지 생명 구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약 1억 8,900만 달러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년 ODA 규모 23.1% 감소,
역사상 가장 가파른 감소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5년 ODA 규모는 1,74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1%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연간 감소폭이다. ODA 규모는 2023년 2,237억 달러에서 2024년 2,121억 달러로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ODA 규모가 감소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주요 공여국의 재정 축소로 분석됐다. 미국의 ODA 규모는 전년 대비 56.9% 수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어 독일(-17%), 프랑스(-11%), 영국(-11%), 일본(-6%) 등 주요 공여국에서 지원 규모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291억 달러를 지원하며 최대 ODA 공여국에 올랐고, 미국은 290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OECD는 2026년에도 ODA가 5.8% 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빈개도국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양자 원조는 각각 25.8%, 26.3% 감소했다. OECD는 "국제개발협력 재원 축소에 따른 공여국 리더십 변화와 개발재원 공백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전통적 공여국 중심에서 다각적
동맹으로…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에서 신흥 중견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독일개발연구소(IDOS)는 2026년 주요 개발협력 동향으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의 '다각적 동맹' 확대를 제시했다. 이는 특정 강대국이나 진영에 의존하기보다 국가별 이익에 따라 다양한 국가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런 변화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다. 기존에는 미국·유럽·일본 등 전통적 공여국이 개발재원과 정책 의제를 주도했지만, 최근에는 인도·브라질·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 신흥국들이 투자와 기술 협력을 확대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남남협력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개발협력 체계가 기존의 공여국-수원국 중심 구조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다극화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개발재원 조달과 국제협력 방식도 더욱 다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볼라 확산에 긴급 대응…
아동 보호 지원 확대

유니세프가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확산 중인 에볼라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긴급 보건·보호 지원을 확대했다. 2026년 5월 기준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는 598건의 의심 사례와 139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유니세프는 백신과 의료 물자를 공급하고, 학교와 의료 시설의 위생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감염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에볼라로 영향을 받은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지원과 아동 보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사태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로 지정했다. 유니세프는 "분쟁과 강제이주가 지속되는 지역에서 아동과 취약계층이 감염과 교육 서비스 중단에 동시 노출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보건·인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벨기에, UNDP에 3,000만 유로 지원
포용적 지원에 활용

벨기에가 2028년까지 유엔개발계획(UNDP)에 3,000만 유로 규모의 핵심 재원을 지원한다. 해당 재원은 특정 사업에 제한되지 않는 유연한 자금으로, 분쟁·재난·강제이주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엔개발계획은 해당 재원을 활용해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고, 복합위기 회복력 강화, 성평등 증진 등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과 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포용적 지원 체계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벨기에가 유엔개발계획에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3,000만 유로를 지원했다.

흩어진 원조를 하나의 비전으로

개발협력의 미래,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

흩어져 있던 개발협력, 분절돼 추진되던
ODA가 하나의 비전으로 연결된다.
기관과 기관, 사람과 사람, 그리고 현장과 미래를 잇는
협력의 네트워크. 코이카가 이제 개별 사업의 수행을 넘어
대한민국 무상원조의 방향을 설계하고 성과를 연결하는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으로 도약한다.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인터뷰

“분절화된 ODA 넘어 성과 중심 통합 원조로”



이규호 개발협력국장은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코이카의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 구축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글로벌 복합위기의 심화와 지정학적 환경 변화 속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지형 역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기후위기, 분쟁, 인도적 위기, 개발재원 축소 등 새로운 도전 과제가 부상하면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방식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거버넌스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의 ODA 체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코이카를 중심으로 무상원조 추진 체계를 통합하는 이른바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 구축 논의다. 외교부와 코이카는 2025년 9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무상원조 사업의 분산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사업의 전략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 결과 같은 해 12월 ‘코이카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화 강화 방안’을 공식 발표하며 본격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ODA는 다수의 기관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인해 정책 일관성과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코이카가 추진하는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 구축은 한국 ODA의 전략적 정합성과 사업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국 개발협력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있다. 그는 오랜 기간 개발협력 분야를 담당하며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다. 특히 이번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 구축 논의 과정에서는 정부 부처와 수행기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며 제도 개선의 방향을 설계하는 핵심 역할을 맡았다.

지난 5월 2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 국장을 만나 한국 ODA 체계 개편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이규호 개발협력국장은 미국국제개발처(USAID) 개편 등으로 국제개발협력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착시효과라고 선을 그었다.

ODA 위기론은 없다

Q 최근 세계적으로 ODA 및 국제개발협력 환경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 개편 소식 등을 두고 일각에서는 'ODA의 위기'라고까지 진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제 정세가 변하는 건 사실이지만, 국제개발협력 분야 자체가 갑자기 바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일어난 일련의 변화를 보면 본질적으로는 'ODA를 효율화해야 한다' 'ODA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죠. 사실 이런 고민은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나오기 전부터 논의되던 이야기입니다.

Q 그럼에도 국제개발협력 분야 종사자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꽤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개별 소식 자체가 충격적이긴 하니까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선진국들이 국방비를 늘린다는 소식, 미국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USAID)가 국무부에 통합됐다는 뉴스 등을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이는 착시효과입니다. 표면적인 뉴스 이면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미 정부는 국무부 내 재난·인도주의대응국(Bureau of Disaster and Humanitarian Response·DHR)을 설립했고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OCHA)에 38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미 기업 중심으로 ODA를 재편한다는 평가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결국 미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나가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Q UN80 이니셔티브*, HDP 넥서스 와 같이 국제사회가 효율성과 통합을 강조하는 최근의 흐름 역시 이러한 '본질'과 닿아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유엔 기구들이 비효율적이니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HDP 넥서스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관련 사업을 분절적으로 해오다 보니 사업의 중첩, 중복 등 비효율이 크더라' 하는 문제의식이 기저에 있죠. 그러니 통합적으로 운영해 효과성을 높이자는 거고요. 물론 미국 재원이 현장에서 확 빠진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 분야 논의의 큰 방향성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Q 이러한 국제사회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최근 ODA 규모를 확대해온 우리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외교부 공식 입장은 '대(對) 글로벌 사우스 외교, 글로벌 책임 강국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ODA가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입니다. 이유는 명확해요. 대한민국을 글로벌 리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죠.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해야 합니다. 글로벌 공공재엔 크게 시장, 안보, 그리고 원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원조입니다.

* UN80 이니셔티브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진행된 유엔 시스템 전반의 대규모 개혁 프로그램으로 '더 적은 자원으로 더 큰 성과를 내는 유엔'이 핵심 목표다.

** HDP 넥서스는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개발(Development), 평화(Peace) 활동을 서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 추진하자는 국제개발협력 접근법이다.

Q 국익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익이 뭔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단기간에 우리 기업 몇 곳이 해외에 진출해 수익을 내는 것만이 국익의 전부는 아니죠. 우리나라의 글로벌 입지가 높아지고, 글로벌 공동체에 기여하는 리더로 인정받는 것 역시 큰 국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국내 원조 예산 규모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던 나라'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정부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니까요. 물론 예산을 한 번에 확 늘리자는 건 아닙니다. 효과성, 효율성을 담보할 시스템을 갖추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겠지요.

무상원조 분절화, 수원국에 부담될 수도

Q 오랜 기간 정책 기획과 현장을 두루 경험해 오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ODA 체계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문제는 무상원조 분절화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41개 부·처·청이 각자의 기관 상황에 따라 무상원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 수만 1,600개가 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소규모, 단발성 사업이 많아지는 데다 성과도 쌓이지 않았습니다. 나라 전체 차원에서 보면 무상원조 우선순위가 없는 겁니다.

반면, 선진국은 외교는 물론 원조정책에도 우선순위와 자기 나라의 색깔이 확실해요. 예컨대 캐나다는 젠더 중심 원조, 일본은 인프라와 인간 안보 중심 원조라는 철학이 있고 그에 맞춰 사업을 수립하고 운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원조도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국가 전략에 따라 세부 목표를 세우고, 그 중심으로 재원을 분배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가시화하는 거죠.

Q ODA를 통합하기보다 각 부처가 보유한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ODA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분야 전문성과 개발협력 전문성 중 뭐가 더 중요하냐는 참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제 입장은 명확합니다. 당연히 개발협력 전문성이 우선돼야 합니다. ODA는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이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현장 상황을 이해하는 개발협력 관점이 없다면 분야 전문성이 있어도 결코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현장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하지도 않고 우리가

> "미국 재원이 현장에서 확 빠져나갔다고 해서 국제개발협력 분야 논의의 큰 방향성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가진 돈이나 기술을 그냥 전달한다고 해서 개발도상국 빈곤 퇴치라는 ODA 목표가 달성되지는 않는 겁니다.

Q 현장의 맥락을 이해하는 개발협력 관점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 사례로 설명해주세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아주 낙후된 개발도상국의 시골 마을에 국내 최고 의료진을 파견하고 첨단 로봇수술 장비를 도입하며, 500병상 규모의 대형 병원을 지어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이것이 현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1차 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보건소를 짓는 게 현지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도움을 받은 그 나라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쌓일 때 이걸 외교적 성과로도 이끌어낼 수 있는 거고요.

Q 현지 중심 국제개발협력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선진 공여국과 글로벌 커뮤니티는 2015년 아디스아바바 액션 어젠다(Addis Ababa Action Agenda·AAAA) 때부터 '현지 주도 국제개발협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공여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지 말고, 현지에 이미 수원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주체들이 있으니 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과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지속 가능

> ❝ 실제 도움을 받은 그 나라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쌓일 때 이걸 외교적 성과로 이끌어낼 수 있어요 ❞



이규호 개발협력국장은 나라마다 원조정책에 우선순위가 있는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에는 이러한 무상원조 우선순위가 없다며 이를 위해 국가 전략에 따라 세부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개발효과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아직 분야 전문성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나오는 건 아쉬운 일이죠.

Q 현장에서 이러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하신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구호단으로 현장에 파견됐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세계 각국에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 임시 거주지와 구호 캠프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튀르키예 정부가 손꼽을 정도로 지금까지 가장 잘 운영되는 곳이 외교부-코이카-한국 NGO가 함께 만든 '한-튀르키예 우정의 마을'이에요. 우리나라 NGO들은 현지 NGO와 파트너십을 만들어 일했거든요. 그 과정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지 NGO와의 협력을 통해 현지화를 이뤄냄으로써 제일 큰 성과를 냈고 현지에서도 호평을 받았죠.

Q 그렇다면 우리에게 현재 부족한 점은 뭘까요?

앞서 강조했듯, 국내 무상원조의 분절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내부의 비효율을 넘어,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도 엄청난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10개, 20개의 부·처·청이 저마다 각자의 사업 제안서를 들고 찾아오니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필리핀인데, 필리핀은 모든 원조 사업을 대통령실이 승인해야 합니다. 10개 부처가 필리핀에서 각자 사업을 하면 부처에선 이 과정을 열 번 진행해야 해요. 한 번은 필리핀 ODA 부처 관계자가 제게 '너무 행정적 부담이 크니 코이카에서 한 번에 모아서 주면 안 되겠느냐'고 요청한 적도 있어요. 비단 필리핀 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국에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상원조 분절화 해소는 시작일 뿐, 성과 중심 ODA 구축해야

Q 분절화 해소를 넘어 한국 무상원조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무엇인가요?

개발협력 효과성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무상원조 사업을 '얼마 지원했다'는 식의 투입률 기준으로 설명해 성과가 얼마나 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나마 코이카는 과학적으로 측정하지만 다른 기관이나 부처 사업은 대부분 만족도 조사 결과가 성과 지표예요. 코이카는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각 사업 단위에서 지표와 기준을 만들어 측정하기 때문에 여전히 국가 전략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판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니까요.

Q 코이카가 단일 창구가 되면 수원국 부담이 훨씬 줄겠네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정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수원국에 훨씬 더 명확하고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반면 코이카가 단일 창구가 되면 수원국 현장에서 요구사항 조율이 어렵지 않을까요?

ODA로 수원국 정부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순 없어요. 그 부분은 명확히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요구사항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 우리 정부에서 정한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은 현지 상황에 맞춤형으로 기획돼야 합니다. 이제 외교부는 우리 무상원조 우선순위를 ▲직업 교육으로 혁신 생태계 구축 ▲모자 보건 증진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혁신적 농촌 이렇게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집중해 가시적 성과를 낸다는 명확한 기준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 ❝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꿈꾸는 청년이라면 직접 현장에서 부딪치며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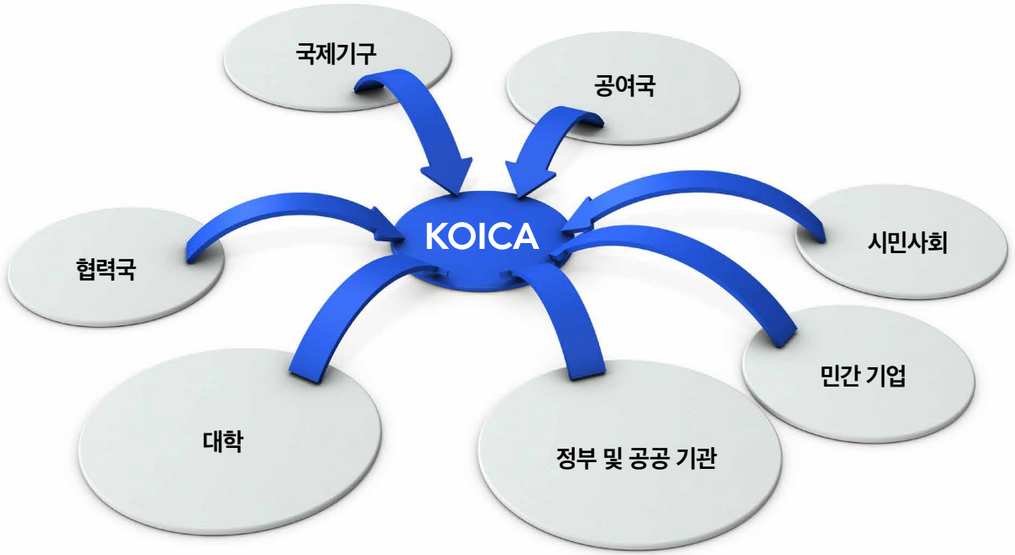
Q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일하거나 이 길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조금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현장으로 나가서 직접 부딪쳐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 나라는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을 때 그 나라의 문제가 학교 건물 자체가 부족한 건지, 아동들이 생계를 위해 일하느라 학교에 못 가는 건지, 학교 가는 길이 위험해 못 가는 건지를 파악하고 실질적 해법을 만들어내는 진짜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K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과 나눈 개발협력에 대한 더 다양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QR코드를 통해 인터뷰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에서 AI ODA까지

제4차 기본계획이 그리는 한국 ODA의 미래



코이카는 여러 시행기관과 민간, 국제기구를 연결하는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은 흩어진 사업과 재원, 참여 주체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말한다.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ODA 분야 최상위 국가 전략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제4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코이카는 핵심 전략 목표 중 하나인 '통합적 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 제4차 기본계획에는 AI ODA와 문화 ODA 전략 목표가 새롭게 반영되면서 한국형 개발협력의 영역이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계적인 개발협력 모델 구축에 초점 맞춘 제3차 기본계획

2021~2025년 추진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은 한국 ODA의 전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계획이었다. 정부는 당시 한국형 개발협력의 방향을 ▲포용적 ODA ▲상생하는 ODA ▲혁신적 ODA ▲함께하는 ODA라는 4대 전략 목표로 제시하며, 단순 원조 확대를 넘어 더욱 체계적인 개발협력 모델 구축에 나섰다. '포용적 ODA'는 당시 팬데믹 상황과 맞물리면서 빈곤층과 취약계층 지원, 보건·교육 접근성 강화 등 사람 중심 개발협력을 강조했고, '상생하는 ODA'는 협력국과 한국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외교 연계형 협력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또한 '혁신적 ODA'를 통해 ICT, 과학기술, 기후 대응 등 미래 분야 협력을 강화했으며, '함께하는 ODA'를 통해서는 민간·시민사회·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확대를 추진했다.

특히 제3차 기본계획 시기에는 그린 ODA 전략, 과학기술·ICT 전략, 농업 전략 등 분야별 전략 수립이 본격화되며 한국 ODA의 분야별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다만 시행 기관별 개별 사업 추진이 늘어나면서 사업 간 연계 부족과 분절화 문제가 한계로 지적됐다. 그리고 이는 이후 제4차 기본계획에서 '통합적 체계 구축'이 핵심 전략 목표로 등장하는 배경이 됐다.

기관·민간·국제기구 연결하는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 역할 수행

제4차 기본계획은 한국 ODA의 규모에 비해 전략성과 통합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전략 목표는 ▲포용적 가치 실현 ▲호혜적 상생 확대 ▲혁신적 개발이행 ▲통합적 체계 구축이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통합적 체계 구축'은 그동안 한국 ODA가 양적 확대와 분야별 전략 수립에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분절된 사업 구조를 연결하고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에 변화를 준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무상원조 분야에만 37개 시행기관이 1,500개가 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관별 중복 사업과 비효율, 현장 간 연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에서 역량 있는 기관 중심으로 시행 기관을 정비하고, 소규모·일회성·저성과 사업을 폐지하며, 통합적 ODA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사업 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사업과 기관을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코이카의 역할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코이카는 앞으로 단순한 사업 수행 기관을 넘어, 여러 시행 기관과 민간, 국제기구를 연결하는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은 흩어진 사업과 재원, 참여 주체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말한다. 개별 프로젝트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상호 연계된 사업들을 프로그램 단위로 재구성해 더욱 입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코이카가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때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사업의 통합적 추진이다. 보건의료 회복력 강화, 기술·디지털·혁신 역량 강화 등 전략적 목표 아래 사업을 연계해 추진한다. 둘째, 시행 주체 간 협업의 강화다. 코이카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다양한 참여자를 연결해 협력의 폭을 넓힌다. 셋째, 성과의 통합적 제시다. 개별 사업 단위의 성과와 더불어 주제·전략목표·세부 분야 단위의 변화를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한다.

AI·문화 ODA로 미래형 ODA의 발판 마련

제4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 ODA의 방향이 단순 인프라 지원 중심에서 첨단기술과 문화까지 아우르는 '미래형 개발협력'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특히 AI 기반 개발협력과 문화·관광 분야 협력이 주요 전략 과제로 처음 본격 반영됐다. 특히 앞으로 AI ODA가 한국형 개발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AI를 단순 기술 지원 차원을 넘어 기후, 보건, 농업,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문화 ODA 역시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정부는 중점 과제로 '문화·관광 협력 확대'를 명시하며, 경제·인프라 중심의 기존 개발협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 분야를 새로운 협력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앞으로 한국 ODA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사업을 추진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냈는지에 달려 있다. 제4차 기본계획은 그 변화의 출발점이며, 코이카는 그 중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ODA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기후, 보건, 농업 등 다양한 한국형 개발협력 분야에서 AI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상원 코이카 사업전략기획실장 기고

코이카 프로그램과 플랫폼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

한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협력국의 발전 여정에 함께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왔다. 우리는 그동안 원조 규모를 꾸준히 늘리고 제도를 정비하면서 국제사회의 중요한 개발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단순히 '얼마나 많이 지원했는가'를 넘어, '왜 그 나라와 협력하는지', 그리고 '그 지원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우리 국민과 파트너 국가에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ODA 패러다임 변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ODA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앞으로는 지원 금액이나 사업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최근 정부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채택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 강조한 '통합적 ODA'도 바로 이런 변화의 핵심에 있다.

전략적·성과 중심 ODA란 무엇인가

이제 ODA는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는지, 사업을 몇 개 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자원을 잘 배분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현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것이다.

먼저 '전략적 ODA(Strategic ODA)'는 모든 나라와 분야에 자원을 분산하기보다 한국의 외교·경제 전략과 협력국의 개발 수요가 만나는 지점에 자원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다. 즉, 원조 규모의 확대보다 자원 배분의 정합성과 정책 목적의 명확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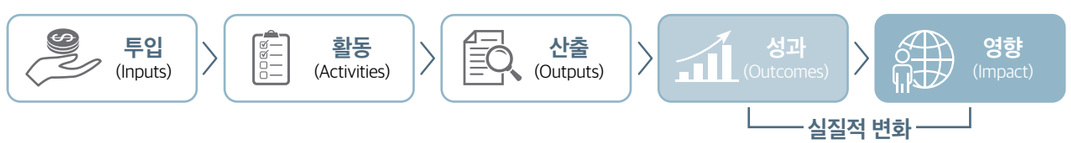
다음으로 '성과 중심 ODA(Results-oriented ODA)'는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변화 이론(Theory of Change)을 기반으로, 그 사업이 실제로 수원국 국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지역사회와 국가에 어떤 결과(Outcome)와 영향(Impact)을 만들어 냈는지를 입증하는 접근이다. 즉, '얼마를 썼는가'보다 '무엇을 변화시켰는가'를 묻는 책임 중심의 방식이다.

'통합적 ODA'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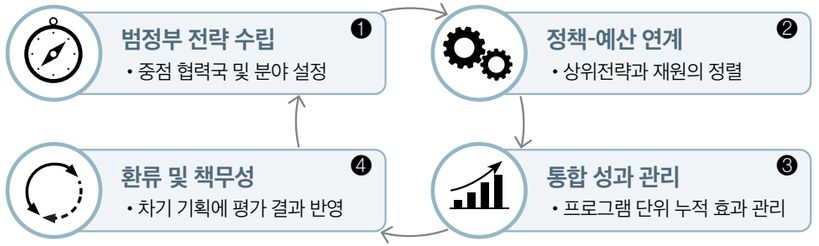
전략과 성과는 선언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앞서 이야기한 전략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ODA를 실천하려면 반드시 '통합적 ODA 거버넌스'라는 제도적 전제 조건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현재 한국 ODA에는 37개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다층적 참여 구조는 우리 ODA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강점이지만, 동시에 전략적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 집행, 평가를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해 나아가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통합적 ODA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와 협력국의 개발 수요가 만나는 지점을 명확히 정하고, 그 기준이 실제 예산과 사업 선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자원 배분이 사후적 합산이 아니라 사전적 선택의 결과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부터 우리나라의 ODA 지원 1위 국가는 방글라데시다. 이러한 국별 지원 규모가 우리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국민에게 분명히 설명할 수 있을 때, 국민과 협력국 모두에 한국 ODA의 방향성이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다.



ODA 변화 이론 모델



통합 ODA 거버넌스 4대 조건

둘째는 정책과 예산의 강력한 연계다. 상위 전략과 실제 예산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예산이 따로 움직이면 현장에서 실현되기 어렵다.

셋째는 프로그램 단위의 통합 성과 관리다. 개별 사업을 넘어 프로그램 단위로 봐야 한다. 같은 나라, 같은 분야에서 추진되는 여러 사업이 서로 연결될 때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별 사업의 '지표' 나열을 넘어 사업들이 함께 '서사'를 만드는 과정이다.

넷째는 평가 결과가 다음 정책과 사업에 실제로 반영돼야 한다. 평가는 끝난 사업을 점검하고 점수를 매기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사업 기획과 예산 재배분에 연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평가는 정책을 학습하고 개선하는 핵심 도구가 되고, 국민에 대한 책무성을 이행하는 수단이 된다.

변화의 중심에서 코이카의 역할

이런 통합적 ODA 체계 안에서 코이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코이카는 단순히 사업과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을 넘어, 한국의 개발협력 전략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전략적 실행 기관'으로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 즉, 단순히 주어진 사업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현장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프로그램 간 연계를 설계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 또 단일 사업의 성패를 넘어 국가·분야별로 여러 사업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묶어 관리함으로써 원조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협력국 사회에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코이카는 48개국에 달하는 해외사무소를 거점으로 수원국 정부, 다른 공여 기관과 현지에서 직접 소통하며 한국 ODA의 모든 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돕는 '현지 협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성과 정보가 정부의 정책 결정과 예산 조정으로 환류되도록 해, 끊임없이 개선되는 성과 중심의 책임 있는 원조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앞으로의 과제

한국 ODA의 패러다임 전환은 새로운 구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정책과 예산, 사업과 평가가 프로그램 단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한국 ODA는 파트너 국가와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변화를, 우리 국민에게는 글로벌 책임을 다하는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K



코이카는 2021년 인도네시아 찌따룸강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 당시 수원국 정부 및 공여 기관과 현지에서 직접 소통하며 '현지 협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다. 사진은 인도네시아 찌따룸강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2차 사업 회의 모습

교육·보건·기후위기 대응을 하나로

‘코이카 프로그램’이 여는 새로운 개발협력



코이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4개의 축

한국의 ODA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동안 분야별·지역별로 나뉘어 추진되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전략 아래 성과를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그 중심에 ‘코이카 프로그램’이 있다.

코이카 프로그램의 시작

한국의 ODA 사업은 그동안 교육·보건·농업·기후 등 분야별로 나뉘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사업끼리 연결되지 못한다는 어려움도 있었다. 예를 들어 직업교육 사업을 진행해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농업 사업을 해도 물류·유통·디지털 기술과 연결되지 않아 성과가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사업 수는 늘어났지만 ‘사업으로 실제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학교를 몇 개 지었는지, 교육을 몇 명이 받았는지는 알 수 있었지만, 그 결과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와 코이카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ODA 체계를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코이카 프로그램’이다.

개별 사업 넘어 하나의 목표로

코이카 프로그램은 여러 사업을 단순히 묶어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다. 먼저 협력국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정한 뒤, 현장 상황에 맞는 지원 수단을 골라 활용하는 방식에 가깝다. 예를 들어 농촌 발전이라는 목표가 있다면, 필요한 지역에는 교육을 지원하고, 다른 지역에는 기술 협력이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식이다. 즉, 사업 자체보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해법을 현장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프로그램 접근의 핵심이다. 코이카 프로그램은 크게 4개 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기술·디지털·혁신 프로그램’이다. 직업기술 교육과 STEM 교육, AI·디지털 접근성 확대, 취·창업 생태계 조성, 문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청년 인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는 ‘보건 회복력 프로그램’이다.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모자보건 개선, 보건인력 양성, 의료체계 강화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보건 안전망을 강화한다.

세 번째는 ‘기후·에너지 대응 프로그램’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폐기물 관리, 기후 적응과 감축, 친환경 공급망 구축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목표다.

네 번째는 ‘지속 가능 안전 지역 개발 프로그램’이다. 농업 생산성 향상, 유통·저장 인프라 구축, 농촌 정책 개선, 치안·안전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

코이카 프로그램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성과 중심’의 접근이다. 앞으로는 예산 규모나 사업 수보다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더 중요하게 관리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협력 방식이다. 코이카는 앞으로 범부처 협력을 비롯해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플랫폼’ 형태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AI 분야에서는 IT 기업과 대학이, 기후 분야에서는 에너지 기업과 국제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과 기관의 글로벌 협력 기회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이카는 2026년부터 코이카 해외사무소가 있는 48개 협력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규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Feature Interview

이호현 행정안전부 사무관

“범부처 협업으로 방글라데시 농촌 개발의 새 해법 제시”



이호현 사무관

Q 방글라데시에서 진행한 ‘혁신적 농촌공동체 프로그램’의 목표는?

한국의 새마을운동 기반 농촌공동체 개발 경험을 활용해 ‘마을 주민이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협력국 정부의 정책 역량, 주민의 자립 역량을 수직적으로 통합 설계해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내재화하고 이를 방글라데시 정부의 정책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Q 이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요?

정부의 통합적·효과적 ODA 기조에 발맞춰 2024년 행정안전부-경상북도-코이카 간 새마을 개발 MOU를 체결하고, 이후 농촌진흥청이 참여하면서 협업 사업으로 발전한 것이 이 프로그램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1960년대 농촌 빈곤 완화를 위해 주민 참여를 핵심으로 한 ‘쿠밀라 모델(Comilla Model)’을 추진한 경험이 있어, 양국의 경험을 결합하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혁신적 농촌개발 모델을 만들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사업 추진의 배경이 됐습니다.

Q 대표 사업 내용을 소개해주세요.

참여기관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방글라데시 맞춤형 새마을 정책 컨설팅과 고위급 초청 연수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추진 동력을 높이고, 새마을 커리큘럼 개발·현지 연수를 통해 주민 자립 역량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로써 이후 코이카와 농촌진흥청의 사업이 주민 역량과 맞물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초 환경을 구축합니다.
다음으로 코이카는 실무 공무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새마을 교육으로 역량이 강화된 주민과 지도자를 중심으로, 주민 조직화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농민의 ICT 활용 역량(디지털 전환) 제고, 청년 주도 소득증대 사업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합니다.
끝으로 농촌진흥청은 역량이 강화된 정부·주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기후 스마트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며 지도사 역량 강화, 농민 교육을 통해 이를 현장에서 확산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합니다.

Q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인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은 여러 주체 간의 거버넌스를 맞추는 일입니다. 한국만 해도 여러 기관이 함께 움직이고, 방글라데시도 정부 산하 세 개 이상의 기관이 협업하며, 여기에 군(Upazila)·동(Union)·마을 단위까지 연결돼야 합니다. 과거 쿠밀라 모델의 한계가 정부와 마을이 따로 움직인 데 있었던 만큼, 이 연결고리를 실제 운영 과정에서 끊임없이 조율하는 일이 어렵고도 중요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모든 기관이 새마을정신으로 합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현지 정부나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방글라데시 정부와 주민의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방글라데시 측의 사업 제안서 접수 이후, 사업 형성·기초 설계 조사단이 현지를 방문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이 대단히 적극적으로 응해주셨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 정부가 농촌 개발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 본 사업의 방향과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진 점이 환영받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은 ‘방글라데시 농촌개발원(BARD)’이 쿠밀라 모델을 전국에 보급한 역사를 지닌 기관이라는 점, 그리고 BARD의 주요 담당자들이 영남대학교에서 새마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점도 한국의 새마을 모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좋은 추진력이 될 것으로 봅니다.

Q 코이카 프로그램이 방글라데시 농촌 개발 사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나요?

먼저 ‘받는 원조’에서 ‘스스로 만드는 개발’로의 전환입니다. 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새마을 개발 정책을 도입·정책화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마을을 잇는 통합적 농촌 개발 모델을 설계에 담았으며, 이 모델이 자리 잡으면 방글라데시 농촌 개발 행정의 작동방식 자체가 한 단계 진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 1억 7,000만 명의 거대 농업국인 방글라데시에 본 모델이 검증되면 인근 국가로 확산되는 표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국가 대상 지원을 넘어 한국이 축적한 개발 경험이 국제사회 공동의 자산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K

신속하게 검증하고 더 크게 확장한다

통합 플랫폼으로 달라지는 공공협력사업

코이카의 '공공협력사업'이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 전략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신속개발컨설팅사업(Q-DEEP)'은 현장 수요를 검증해 신속하게 미래형 사업을 발굴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Q-DEEP에 참여해 가나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본사업 연계까지 더 빠르게…
개발협력 실행력 높인다

공공협력사업은 국내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분야별 전문성과 코이카의 ODA 사업 수행 경험, 현장 네트워크를 결합해 개발도상국의 제도 개선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이카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기관에 사업비, 사업 컨설팅, 현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성과 관리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공협력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면 당해 연도에 바로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한다. 보통 사업 발굴, 사전 조사 및 타당성 조사, 정부 심의 등을 거쳐 착수까지 2~3년이 소요되는 국별협력사업과 차이가 있다. 공공협력사업은 Q-DEEP과 본사업으로 나뉘는데, Q-DEEP의 경우 4억 원 이내, 본사업은 최대 500만 달러 이내에서 예산이 지원된다. 코이카가 5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당해 연도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은 공공협력사업이 유일하다. 그만큼 공공협력사업은 민첩한 ODA 협력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코이카는 앞으로 공공협력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 성과 관리를 위해 역량 강화 교육까지 실시하며 사업 품질을 한층 높일 방침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이 가나에서 현지 드론 관련 기관 종사자에게 농약 살포용 드론의 구조, 정비 방법 등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Q-DEEP으로 가나 드론 분야
개발 로드맵 완성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5년 가나의 중장기 드론 분야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 사업을 Q-DEEP을 통해 착수했다. 이 사업은 가나의 드론 산업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향후 우선 추진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성격의 사업이다. 사업은 2024년 가나민간항공청(GCAA)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에 따라 가나 현지 조사와 정책 협의를 거쳐 드론 규제 개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 조종자 훈련,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선정했다. 사업 대상지는 가나 전역이었다. 특히 수도 아크라를 중심으로 드론 안전관리와 산업 기반 조성 방안이 검토됐다. 또한 코트디부아르, 토고, 부르키나파소 등 서아프리카 지역 연계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다.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가나의 드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로드맵에는 드론 관련 법·제도 정비, 드론 안전관리센터 구축, 전문 조종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 및 산학협력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 농업·보건·물류·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보건 분야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혈액·백신·응급의약품 배송 체계의 확대 가능성을 조명한다. 드론을 활용하면 도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도 응급의약품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어 의료 접근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농업 분야에서도 정밀농업, 병해충 방제, 작물 생육 모니터링 등에 드론을 활용해 농업 생산성과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Feature Interview

조주용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원

"현지 네트워크 통해 물심양면 지원해준 코이카에 감사"



조주용 연구원

Q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코이카 Q-DEEP에 참여한 배경과 궁금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에서 쌓아온 드론 안전 관리와 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와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자 이번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드론은 농업·물류·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 관련 법·제도나 전문인력 양성 체계, 안전관리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단은 이러한 점에 주목해, 드론 산업에 대한 관심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가나를 협력국으로 선정했습니다. 2024년부터 가나민간항공청과 온라인 회의를 시작으로 교류를 이어왔고, 국내 초청 연수와 현지 연수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 기반을 차근차근 만들어갔습니다.

Q 가나 드론 사업과 관련해 Q-DEEP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나요?

이번 사업은 가나 정부가 앞으로 드론 산업을 스스로 육성하고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추진 가능한 후속 사업 발굴과 타당성 조사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 체계와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나가 미래 드론 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Q 가나에서 드론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나는 서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비교적 정치·사회적으로 안정적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 전환과 첨단기술 산업 육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드론 사업을 추진하기에 좋은 기반이 됩니다.

Q Q-DEEP 추진 시 코이카에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처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기대도 컸지만 동시에 현지 제도와 문화, 행정 환경이 낯설었습니다. 특히 현지 정부기관과 협력 관계를 만들고 사업 방향을 조율하는 과정은 국내 사업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이카는 개발협력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현지 정부와의 협력 방식 등에 대해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이카 가나사무소는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부기관과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적극 지원해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는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고, 현지와의 신뢰 관계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Q 코이카의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코이카는 기존의 'Q-DEEP→파일럿→본사업' 구조를 'Q-DEEP→본사업'으로 간소화하면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계가 많은 만큼 안정성과 검증 측면의 장점이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책 변화나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모빌리티, 스마트 기술처럼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는 사업의 적시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간소화된 구조는 현장 수요를 더 빠르게 반영하고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절차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실제 어떤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더욱 집중하는 방향으로 ODA 사업이 발전해가야 한다고 봅니다.

Q Q-DEEP을 통해 본사업인 '가나 드론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 상호인정(한-가나) 체계 구축'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계획은 무엇인가요?

가나가 스스로 드론 산업을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특히 Q-DEEP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우선순위 후보 사업인 '가나 드론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 상호인정(한-가나) 체계 구축' 마련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 체계와 자격·운영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운전면허처럼 한국과 가나 간 드론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모델을 아프리카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지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지원과 전문인력 역량 강화, 유지관리 체계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K

Q-DEEP에서 본사업까지

맞춤형 날씨 정보 제공… 페루 농촌 바꿨다



페루 아코라에서 정유란 아태기후센터 선임연구원(가운데)이 '지역 기후/기상 이해도 개선 및 농업 연계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농업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페루에서 한국형 기후 정보 서비스 모델이 본격적인 현장 실험에 들어간다. 사업을 이끄는 주체는 기후·기상 전문기관들로 구성된 APCC 컨소시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주)웨더피아)이다. APCC 컨소시엄은 코이카 공공협력사업의 첫 단계인 '신속개발컨설팅사업(Q-DEEP)'을 통해 현장 수요를 발굴한 데 이어, 이를 실제 '본사업*'으로 연결하며 페루 지역사회 기후회복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현장 조사로 드러난 페루의 기후위기 현실

이 사업은 현지 기후위험을 분석하고, 농민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후 정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뒤, 이를 향후 중남미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로 검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APCC 컨소시엄은 앞서 코이카 Q-DEEP 단계에서 페루 현지 조사를 수행하며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2024~2025년 리마와 모투페, 아코라, 아코크로 등 주요 지역을 방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학, 국제기구, 농민 단체 등 30여 개 기관과 협의를 진행했고, 현지 농민들의 기후위험 노출 상황과 기후 정보 수요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는 분명했다. 페루 농촌지역은 이미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지만,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기후 정보는 부족했다. 기후 정보는 기관별로 분산돼 있었고, 정보 전달 체계 역시 현장 농업과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다. 특히 고산지대와 농촌지역에서는 기상관측 인프라 부족으로 실질적인 농업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APCC 컨소시엄은 Q-DEEP 단계에서 확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페루 지역사회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후정보서비스 개선 사업'을 2단계 본사업으로 추진했다. 2025~2027년 페루 북부 해안 저지대 모투페, 안데스 고산지대 아코라, 내륙 산악지대 아코크로 3개 지역을 대상으로 '농업기후관리플랫폼(PGA)'을 구축하고 고도화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모투페 지역은 엘니뇨로 인한 홍수와 가뭄 피해가 반복되며 망고와 아보카도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23년 망고 산업에서는 약 850만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고, 아보카도 생산량의 절반은 수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코라 지역은 빙하와 강수량 감소로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아코크로 지역은 가뭄과 산불, 집중호우가 동시 발생하는 대표 기후 취약지역으로 꼽힌다.

농민 맞춤형 기후 정보 플랫폼 구축

PGA는 단순한 기후 정보 시스템이 아니라, 기상청과 지방정부, 농민, 농업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기후 정보를 생산·공유·활용하는 지역 기반 플랫폼이다.

APCC 컨소시엄은 기존 PGA 운영 지역인 모투페와 아코라에서는 농업 기상 서비스와 관측·데이터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기능을 고도화하고, 신규 대상지인 아코크로에는 새로운 PGA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APCC 컨소시엄 관계자는 "특히 해안 저지대, 안데스 고산지대, 내륙 산악지대라는 서로 다른 기후 환경에서 사업을 동시에 운영해 다양한 기후 조건 속에서도 적용 가능한 기후 정보 서비스 모델에 대한 검증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업은 크게 '기후 데이터 구축-정보 생산-현장 전달-농민 활용'이라는 네 단계로 추진된다. 단순한 날씨 예보가 아니라, 농민들이 실제 농사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뒀다. 먼저 APCC 컨소시엄은 '자동기상관측장비(AWS)' 등을 활용해 지역별 기온과 강수량, 습도 같은 기후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이다. 현재 페루 농촌지역은 관측장비와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별 기후변화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농업 맞춤형 정보로 다시 가공된다. 예를 들어 단순히 '비가 적게 온다'는 예보가 아니라 '병해충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관개가 필요한 시기다' 같이 농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현재 여러 시스템으로 나뉘어 있는 페루 기상청의 농업기상 데이터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정보 전달도 현장 중심으로 이뤄진다. APCC 컨소시엄은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WhatsApp)'과 지역 워크숍, 농민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농민들이 기후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실제 농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기후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인 페루 기상청의 과학기술 역량과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해 사업 성과의 지속성과 주도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순 지원 넘어 '농민 참여형 기후 ODA'로

특히 이번 사업은 농민 참여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특장점을 찾을 수 있다. APCC 컨소시엄은 'PICSA(농민이 기후 정보를 보고 스스로 농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참여형 교육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농민들이 직접 기후 정보를 이해하고 농업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APCC 컨소시엄 관계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받는 수준이 아니라 농민 스스로 기후 정보를 읽고 파종 시기와 작물 선택, 물 관리 전략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현지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아코크로 지역 농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5% 이상이 '기후변화 피해를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97%는 '기후 정보 교육과 플랫폼 구축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현재 제공되는 기후 정보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지만, 지역 맞춤형 정보가 제공된다면 생산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코이카가 페루 아야쿠초에 자리한 농가에서 '자동관측시스템 설치 장소 선정 기념식'을 진행하는 모습

APCC 컨소시엄은 이번 사업을 단순히 페루에 국한된 지원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해안과 고산, 내륙 산악지대라는 서로 다른 기후 환경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중남미 지역 전체로 확산 가능한 기후 정보 기반 농업 회복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사례는 코이카 공공협력사업이 어떻게 현장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기도 하다. Q-DEEP으로 현장 수요를 검증하고, 이를 본사업으로 연결해 실제 적용 가능성을 실험하는 구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APCC 컨소시엄은 그 첫 현장으로 페루를 선택했고, 지금 그 실험은 실제 농민들의 삶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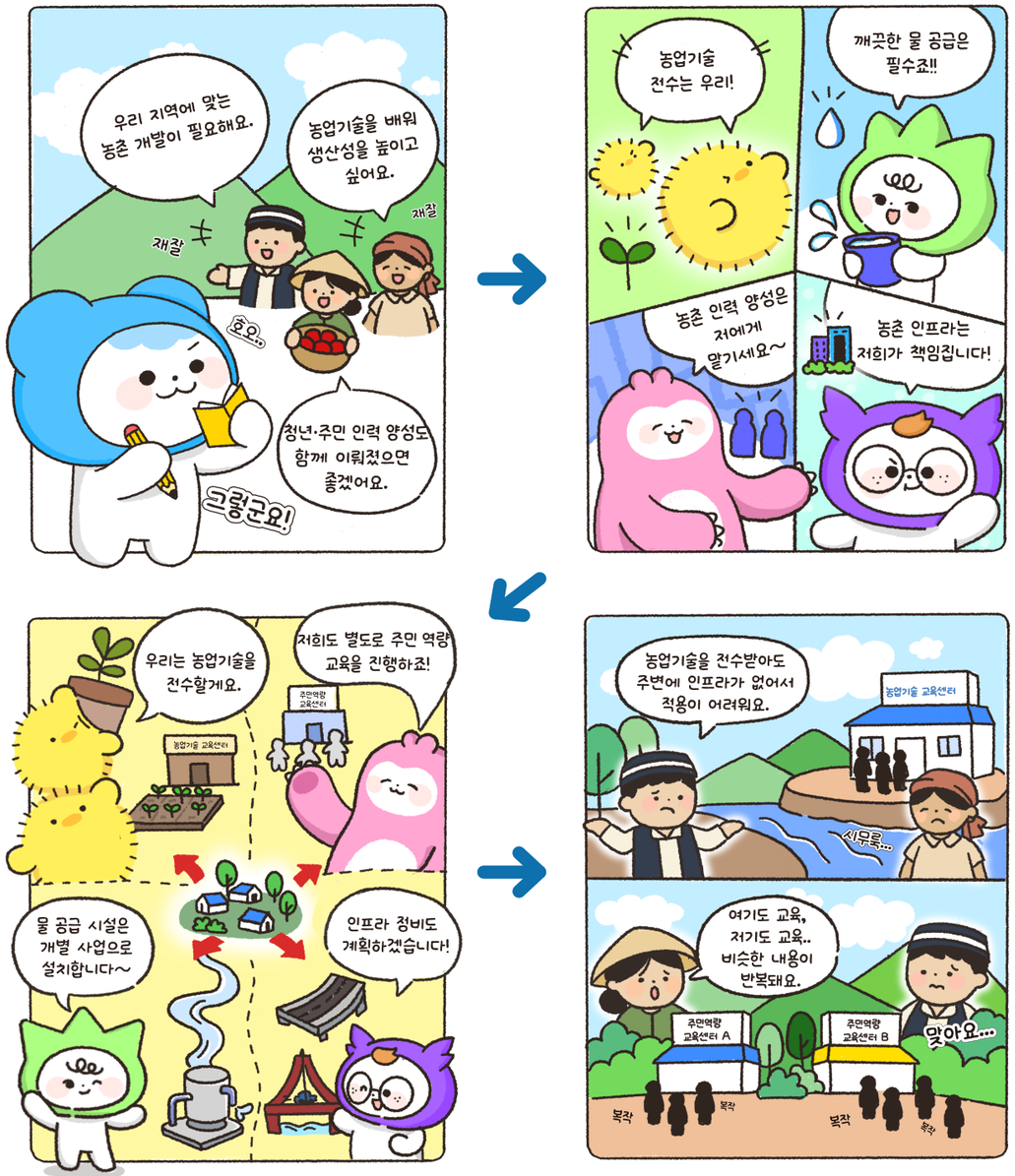
페루 아코크로의 한 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된 농민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지역 농민이 APCC 컨소시엄 관계자와 페루 기상청 관계자의 지도에 따라 작물 달력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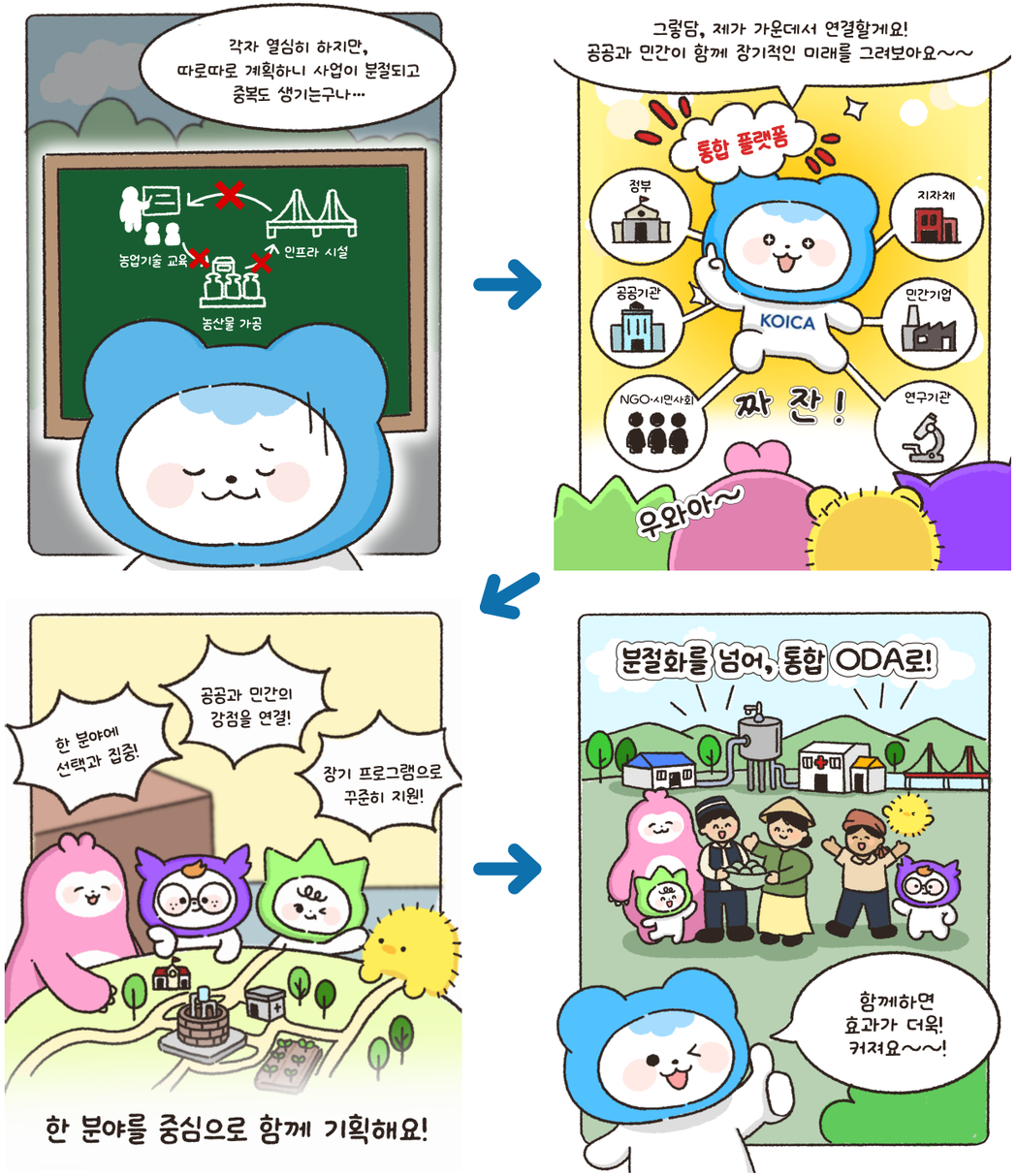
* 2025년 파일럿 사업으로 선정, 2026년 개편된 제도상에서는 본사업에 해당함.

만화로 보는 통합 ODA

'따로'가 아닌 '함께', 통합 ODA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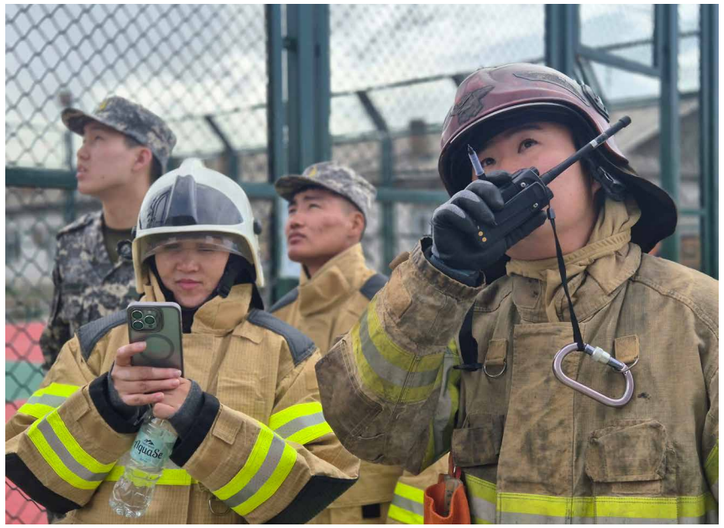
'잘하고 있는데 왜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까?' 답은 '연결'에 있다.
흩어진 사업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가는 통합 ODA.
코이카 캐릭터들과 함께 더 큰 변화를 만드는 방법을 만나보자.





이제는 한 팀으로

연수사업도 코이카가 묶는다



2025년 9월 진행된 '코이카-소방청 몽골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서비스 역량강화 현지연수'에서 양국 대원들이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한국 ODA 인재 양성의 핵심 축인 연수사업이 대대적으로 바뀐다. 부처별로 흩어져 운영되던 기존 방식에서 코이카를 중심으로 한 연수 플랫폼 '이음-씨앗(IEM-CIAT)'으로 재편되는 것이 핵심이다.

2025년에는 30개가 넘는 부처와 기관이 300건 이상의 단기 연수사업을 개별로 추진했다. 규모는 약 600억 원에 이르지만, 소규모·분산 운영으로 인해 사업 간 중복과 비효율, 성과 분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공식적으로 소규모 단기 연수사업을 통합하기로 하고, 코이카 중심의 일원화 체계 구축에 나섰다.

발굴부터 성과 관리까지 한 플랫폼으로

가장 큰 변화는 사업 추진 구조의 '단일화'다. 올해부터 일부 부처 연수사업이 코이카로 시범 이관됐고, 2027년 이후에는 코이카 채널을 통해 단기연수 사업이 발굴되고 예산 편성이 일원화된다. 부처를 통해 발굴된 사업은 '부처연수지원'이라는 통합 예산 체계로 묶이고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관리된다. 사업 발굴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사업 시행 2년 전부터 준비하는 'N-2 방식'이 적용돼 절차가 길고 환경 변화 대응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1년 전 준비로 단축한 'N-1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사업 발굴과 실행 시점까지의 시간을 대폭 줄였다. 이를 통해 현장 수요 대응에 대한 적시성을 높이고 사업 변동 리스크를 낮춰 수원국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이카-소방청 몽골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서비스 역량강화 현지연수' 현장에서 찍은 기념 단체 사진

코이카는 이런 통합 체계에 따라 현재 2027년도 '부처연수지원 신규사업'을 접수하고 있다. 올해 각 정부부처와 광역지자체를 통한 사업 제안서를 8월 14일까지 접수하며, 예비검토와 사업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제출 방법은 코이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영 방식도 '분업형 협업 구조'로 바뀐다. 코이카는 사업 발굴부터 기관 선정, 운영 및 성과 관리까지 전체 체계를 총괄하고, 각 부처는 교육과정 설계와 전문 강의 참여를 통해 자신의 정책 전문성을 반영한다. 재외공관과 해외사무소는 현지 수요 조사와 연수생 선발을 담당해 현장 성과를 강화한다.

성과 관리 체계도 통합된다. 연수생 선발부터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되며, 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식 확산과 성과 지속성 확보가 강조된다. 이를 통해 단순 교육을 넘어 실제 정책 변화와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사업 정리가 아니라 인재 양성 ODA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개별 기관 중심의 '분절형 연수'에서 벗어나, 국가 전략과 연계된 '통합형 인재 양성'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번 변화의 방향은 분명하다. 각자 운영하던 연수사업을 하나로 묶고, '따로'가 아닌 '함께' 설계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Feature Interview

김윤이 코이카 연수사업 1팀 과장

"분절된 연수사업 넘어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김윤이 과장

Q 코이카를 포함해 각 정부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수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이카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부처가 한국 고유의 개발 경험과 기술을 협력국과 공유함으로써 협력국의 개발과제 해결 및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수사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2주 내외의 단기로 국내에 초청하는 초청 연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일 협력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국별 연수, 두 개 이상의 협력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다국가 연수로 구분됩니다. 둘째는 다수의 협력국을 대상으로 연수생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학위 연수가 있습니다.

Q 그동안 우리 정부 ODA 연수사업이 약 30개 부처, 공공기관에서 개별 추진됐습니다. 어떤 곳에서 연수사업을 했는지요?

그간 다양한 중앙행정기관(부처·원·처·청·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 연수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부처에서 코이카로 이관된 일부 연수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부처로는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에서 추진해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기상청·식품의약품안전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연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Q 코이카가 주관하는 연수 플랫폼 '이음-씨앗(IEM-CIAT)'은 무엇인가요?

이음-씨앗은 우리 정부의 통합 연수 브랜드 '이음(IEM·Inclusive Education Modules)'과 코이카의 연수사업 '씨앗(CIAT·Capacity Improvement and Advancement for Tomorrow)'을 결합한 통합 연수 플랫폼입니다. 코이카와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사업의 발굴-추진-성과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입니다.

이 플랫폼에 따라 코이카는 부처의 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수원국의 실질 수요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부처의 사업 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부처의 사업 수요를 우선 조회하고, 이 조사 결과를 재외공관과 코이카 사무소를 통해 수원국에 전달해 수원국 측에서 해당 사업 제안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를 함께 조사합니다. 코이카는 이렇게 조사된 결과를 부처에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부처에서는 부처의 전문성에 기반을 둔 사업 제안이 가능하며, 수원국은 소통 채널의 일원화를 통해 피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코이카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연수생의 모집, 선발 절차를 진행하며, 부처 및 시행기관과 협력해 연수 과정을 본격 운영합니다. 과정이 종료돼 연수생들이 귀국한 이후에는 코이카 연수생 동창회를 통한 지속적인 친한 네트워크 관리 및 지식 확산 활동을 지원해 연수 과정에서 획득한 지식을 소속 기관과 지역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Q 여러 부처 중에서 코이카로 연수 플랫폼을 통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코이카는 기관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글로벌 연수사업을 추진해 온 경험과 전 세계 48개국 현지 사무소를 활용한 수원국과의 긴밀한 현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이카 연수센터 및 온라인 연수 플랫폼(CIAT-ON) 등 다양한 방식의 연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앗 통합 플랫폼에서는 부처와 공공기관이 코이카가 보유한 시스템과 네트워크 기반을 활용, 연수 콘텐츠 기획에 집중해 수원국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이음-씨앗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해주십시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ODA 사업의 분절화를 줄이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중복사업을 방지하고 성과·위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더욱 체계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글로벌 인재 양성 ODA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각 부처의 정책 분야 전문성과 코이카의 ODA 및 연수사업 운영 경험을 결합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원국의 연수 수요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수요 기반 맞춤형 연수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협력국의 만족도를 높이고 친한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

독자 이벤트 당첨작

‘코이카’ 삼행시로 만나는 국제개발협력의 가치

코이카와 국제개발협력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MAGAZINE KOICA는 지난 4월 웹진을 통해 ‘코이카 삼행시 이벤트’를 진행했다. 1,000여 명의 독자가 참여하며 뜨거운 호응을 보인 가운데, 이벤트 취지를 가장 잘 담아낸 응모작들이 최종 선정됐다.

코 끝이 찡해질 만큼 세상을 바꾸는 손길
이 름 없이도 곳곳에 희망을 심고
카 메라에 안 담겨도 지구를 더 따뜻하게 만든다

코 이카가 걷는 발자취마다
이 해와 협력의 꽃이 피어나고
카 멜레온같이 현장에 녹아들어 세상을 바꿉니다

코 카콜라보다 톡 쏘고 시원하게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고
이 온음료보다 부드럽고 촉촉하게 소외된 이들의 마음을 채워주는
카 장 완벽한 글로벌 파트너, 그 이름은 바로 코이.카!

코 잠든 아이
이 제 겨우 10살이지만,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하루 15시간씩 일합니다
카 난을 끝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과 연대입니다

코 이카의 시작은
이 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
카 운드다운 시작, 세계 평화를 위한 발걸음

코 앞의 이익보다 인류 공영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며
이 정표 없는 길 위에서도 묵묵히 나눔의 길을 개척해 온 우리
카 (가)슴 벅찬 미래를 향해 코이카는 멈추지 않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코 이카와 함께한 시간은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더 멋진 기관이라고
카 리브해안까지 소문났대요

코 끝이 시린 오지부터 다양한 현장까지 발로 뛴 시간들
이 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변화와 기적의 순간들
카 메라 앵글에 전부 담기엔 너무나도 크고 눈부신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전하는 진심입니다

코 너에 몰렸다고 낙담만 하고 있을 건가요?
이 제 당신 곁엔 코이카가 있다고요!
카 엔진처럼 뜨거운 내일을 향해 시동 걸어보아요!

코 로나도, 재난도 멈출 수 없었던
이 로운 나눔의 발걸음
카 또 반하게 되네, 코이카

코 리아와의 개발협력이 필요하다고요?
이 리 둘껍니까? 코이카 무상원조 바이로 들어갑니다잉~
카 바로 이 맛 아입니까~^^

코 끝에 스민 시원한 바람처럼 세상에 희망을 불어넣는 코이카
이 음줄 되어 인류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진정 어린 코이카
카 네이션의 붉은 약속처럼 사랑과 평화를 꽃피우는 세상의 좋은 친구 코이카

코 리아라는 이름이 신뢰의 상징이 된 것은
이 념과 국경을 넘어 나눔을 실천한 코이카 덕분입니다
카 리스마 있는 리더십으로 코이카가 써 내려갈 다음 35년을 응원합니다

코 너에 몰려 눈물짓는 지구촌
이 웃들에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다정하게 손을 내밉니다
카 페트를 깔아주듯 그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코 리아, 동방의 등불이었지
이 제는 세계의 등불이라
카 더라!

코 를 스치는 바람처럼 가볍게 시작해도
이 작은 나눔이 큰 기적이 되고
카 메라 밖에서도 진짜 삶을 바꾼다

코 끼리가 사는 먼 아프리카 오지마을까지
이 렇게나 진심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카 리브해부터 전 세계를 누비며 내일을 바꾸는 ODA 국가대표

코이카 35년을 일군 베테랑 3인 인터뷰

병원 건립부터 박물관 설계까지, 개발협력 성공의 순간들

가나·나이지리아·모로코·이라크·인도·카메룬… 지금의 코이카가 있기까지 수많은 도전을 해왔던 베테랑 3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거론된 나라들은 손가락으로 헤아리기 어렵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만큼 기적 같은 변화를 일으킨 에피소드도 무궁무진하다.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코이카 창립 35주년 기념 유튜브 토크쇼에서 풀어냈다.

참가자
김영란 경영전략처장, 31년 근무
라갑채 분쟁취약지원팀장, 18년 근무
장우찬 서남아팀/태평양도서국팀장, 21년 근무



코이카 베테랑 3인이 자신의 10년 후 모습을 그린 그림을 들어 보이며 웃음 짓고 있다. 왼쪽부터 장우찬 서남아팀/태평양도서국팀장, 김영란 경영전략처장, 라갑채 분쟁취약지원팀장



서울 종로구 혜화동 시절의 코이카 본부



라갑채 분쟁취약지원팀장은 코이카 본부가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던 시절에는 퇴근길에 선배들과 우연히 만나 저녁식사를 함께하는 일이 잦았다고 회상했다.

개발협력 현장을 누빈 베테랑 3인이 코이카에서 보낸 시간을 합치면 총 70년이다. 긴 호흡으로 국제개발협력 현장과 본부를 오간 그들은 어떤 장면들을 기억하고 있을까. 코이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베테랑들이 신입사원 시절을 떠올리자 자연스럽게 혜화동의 추억이 소환됐다. 지금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코이카 본부는 1991~2008년에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자리하고 있었다. 2008년에 입사한 라갑채 분쟁취약지원팀장(이하 라 팀장)은 "퇴근길에 선배들을 마주치는 일이 많았다"며 "그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저녁을 사주시곤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영란 경영전략처장(이하 김 처장)이 그 시절을 떠올리며 거들었다.

"대학로 길목에서 선배, 동료가 어울려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거든요. 회사 바로 앞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까지 4시간 걸린 적도 있어요. 당시 신입사원은 모든 부서장 회의에 배석하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회사 업무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죠. 덕분에 개발협력과 회사 운영 전반을 배웠어요. 어쩔 수 없이 야근하며 개인 업무를 처리했는데요. 그렇게 고된 하루를 보내고 회사 밖으로 나서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선후배 간 정이 깊고 함께 어울리는 문화가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장우찬 서남아팀/태평양도서국팀장(이하 장 팀장)은 지난 2월에 입사 동기들과 입사 20년을 기념해 대학로 본관을 다시 찾았단다.

"당시 본관은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인데요. 건물 곳곳을 둘러보며 기념사진도 찍고, 신입 시절 추억과 옛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업보다 사람, 현장이 가르쳐준 것들

개발협력은 사람과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는 일이다 보니 하나의 사업도 긴 호흡으로 가져간다. 김 처장은 필리핀 카비테 친선병원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는 드문 경험을 했다.

"현장과 본부를 오가면서 1차 사업부터 3차 사업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어요. 코이카 내에서도 드문 사례인데요. 카비테 친선병원 개원식 날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카비테 주정부와 보건부 관계자들, 병원 직원들과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딸아이가 처음 태어났던 순간처럼요. 지금은 단순한 공립병원을 넘어 지역사회 보건교육까지 담당하는 필리핀의 대표 모델 병원으로 성장했는데요. 돌이켜 보면 병원을 세운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신뢰를 쌓고 함께 노력했던 경험이 지금도 개발협력의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 팀장은 인도 주재원으로 파견 근무할 당시 만난 인도인 사업가가 조언한 "인도는 인도 사람도 힘든 나라. 인도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기술이 아니라 인내"라는 말을 마음에 새겼다.

"인도는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이라크, 가나와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14억 인구를 가진 만큼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했고, 중앙정부 관계자들을 상대하는 일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며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했다면, 인도에서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ODA 협력의 기반을 만들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





장우찬 서남아팀/태평양도서국팀장은 인도 주재원으로 파견 근무할 당시 인도의 남다른 문화로 인해 어려움도 많았지만 인내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사진은 장 팀장이 인도에서 근무할 당시의 모습

이라는 믿음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사업 추진보다 더 중요한 '인내의 가치'를 배운 겁니다."

입사 3년 만에 카메룬사무소 주재원으로 파견된 라 팀장은 응급의료센터 건립 사업을 맞닥뜨렸을 때를 떠올렸다. 처음에는 한국에서도 쉽지 않은 응급의료센터를 카메룬에서 운영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단다.

"부임 전에 승인된 사업이었고, 설계와 시공, 의료 기자재 공급 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카메룬은 아주 열악했거든요. 환자가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의료물품을 구해와야 치료받을 수 있는 취약한 구조였고요. 즉각 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들을 위한 응급의료센터인데, 근본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꾸역꾸역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응급의료 전문의 정중식 박사가 아내와 네 살배기 아이를 데리고 건너와 전문가로 합류한 거예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진 교육을 지원했어요. 6년 8개월 동안 머물며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한 명의 전문가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직접 목격한 겁니다."

한때 실패를 예상한 사업이 한 국가의 대표 보건 성공 사례로 평가받으면서 그는 깨달았다. 개발협력 사업의 성패는 예산이나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좋은 건물을 짓고 장비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계를 넘어 가능성을 만드는 힘

낯선 땅에 서서 협력국에 필요한 제도·경제·기술적 기반을 강화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 장 팀장은 "소화력이 좋은 편이라 여럿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저만 배탈이 안 났다"며 "음식이든 문화든 현장에서는 소화를 잘 시켜야 한다"고 농담을 섞어 긴 시간 개발협력 현장을 누빈 비결을 꺼냈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건 AI가 해줄 수 있지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고 결정하는 건 사람의 몫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상충하는 이견을 조율해 앞으로 나가도록 소통하는 능력은 앞으로 더 필요할 거예요."

개발협력 현장은 다양한 수요자의 복잡한 상황과 제한된 공급자의 역량을 연결해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동시에 지원한 사업은 현지에 뿌리내려 지속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 처장은 현지 친화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지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친화력은 개발협력 활동에 핵심 역량입니다. 개발도상국 현지 상황은 우리가 가진 정보와 지식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전 완벽성'에 집착하기보다는 빠르게 실행하고 현장에서 점검하며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필리핀 일로일로에서 격오지 병원 건립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이해관계자들과 인터뷰하고, 수혜자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지역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조정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차례 이상 사업지를 방문하고 지역 보건 인력들과 워크숍을 하며 사업을 다듬었던 기억이 납니다."

라 팀장은 콩고민주공화국 국립박물관 건립 사업 추진 당시 문제 해결 능력으로 가능성의 씨앗을 키워낸 일화를 풀어냈다. 사업에 착수할 때부터 부족했던 사업비를 큰 규모로 증액하기 위해 그는 추진 방식부터 정립해 나갔다.

"감사나 책임 문제에 대한 부담이 컸지만, 사업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고, 증액 타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최종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사업비를 어렵게 확보한 다음에는 설계업체 선정 방식을 개선했다. 국가의 랜드마크가 될 시설인데, 설계 비용이 가장 적다는 이유로 설계를 맡기기에는 업체 선정의 설득력이 부족했다. 이에 코이카 사업 최초로 설계 공모 방식을 도입해 가격은 물론 디자인과 역량 등을 기준으로 최종 설계업체를 선정했다.

"처음 시도한 일이라 다른 기관 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절차를 만들어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지 문화와 환경에 잘 어울리는 설계안이 채택되었고, 지금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 이후의 운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됐을 때는 대규모 행사 공간이나 호텔 등 연회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설계에 다목적 행사 공간을 포함해 활용도를 높이자는 아이디어를 반영했다. 실제로 국가 주요 행사와 결혼식 등 연회에 활용되고 있다.

No One Left Behind, 코이카의 미래를 말하다

35년의 시간 속에서도 사람을 향한 개발협력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았다. 장 팀장은 "코이카 직원들은 공동의 선을 지향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구촌의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개인의 성취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의미를 두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태어난 국가나 지역, 성별과 관계없이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과 창출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에게 공유하고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장우찬 서남아팀/태평양도서국팀장은 앞으로 개발협력 업무에서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말했다.

코이카의 내일을 위한 조언도 덧붙였다. 코이카의 활동이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국가 간 신뢰와 협력을 구축하는 공공외교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라 팀장은 "현장에서 직접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관리한 경험은 코이카 고유한 역량"이라며 "개발협력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단절되지 않고 조직 전체의 자산으로 축적, 공유될 수 있도록 지식 관리와 학습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코이카 구성원에게는 창의적인 사고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도전정신과 용기가 필요해요. 왜 이 일을 하나? 더 나은 방식은 없나? 지속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먼 미래에도 개발협력 전문성이 있는 기관, 해외 현장에서 사업을 잘하는 기관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김 처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ODA 환경 속에서 가치와 철학뿐 아니라 효율성과 성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이카 구성원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워왔으며, 덕분에 한국 ODA가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며 차별화된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35년간 한국 ODA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가치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코이카의 지난 시간을 지켜낸 베테랑 3인은 후배들의 성장과 코이카의 안녕을 응원하며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미래 35년을 뒷받침할 것이다. K



김영란 경영전략처장은 개발협력 현장이 예상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완벽성에 집착하기보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전략을 조정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코이카 베테랑 3인과 나눈 유쾌한 인터뷰는 QR코드를 통해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창립 35주년 기념 '코이카 10대 뉴스'

희망의 씨앗, 변화와 성장의 결실

코이카가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코이카는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꾸준히 활약하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왔다. 세계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변화와 성장의 결실을 거둬온 코이카의 주요 순간을 10대 뉴스로 정리했다.

01 대한민국 ODA 역사의 첫걸음 코이카 정식 발족



1991년 4월 1일, ODA 전담 기관인 코이카가 정식 발족했다. 이는 대한민국 ODA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기념비적인 일이다. 창립 당시 본부·지원사업단·6개 해외사무소로 조직을 구성하고, 기존 ODA 기관 인력 158명을 승계했다. 이후 공개 채용을 통해 조직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02 대한민국 정부 통합 봉사단 월드프렌즈코리아(WFK) 출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부터 한국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을 이관받으면서 시작한 대국민 참여형 봉사사업은 2009년에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해외봉사단을 통합해 대한민국 정부 봉사단 브랜드인 '월드프렌즈코리아(WFK)'를 전격 출범시켰다. 2026년 6월 기준, 전 세계 53개국에서 1,050여 명의 단원이 세계 이웃을 돕고,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03 개도국의 미래 리더를 길러내다 글로벌 연수사업 확대

코이카가 개발도상국의 미래 리더를 길러내는 연수사업을 펼치고 있다. 1991년 협력 대상국에서 362명을 초청한 '역량개발 연수사업'을 시작으로, 1997년에는 '코이카 장기 학위 연수사업'을 도입해 연수생들을 자국의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시켰다. 현재는 연수사업 브랜드 '이음-씨앗(IEM-CIAT)'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의 선순환을 완성해나가고 있다.

04 국민의 ODA 인식을 높이다 소통과 교육 허브 구축

2010년에 국내 최초의 개발협력 전문 교육기관인 ODA교육원을 설립했다. 지구촌체험관도 개관해 협력 대상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 교육 공간을 마련했다. 현재는 개발협력전시관으로 새단장해 글로벌 시민의식을 전파하고 있다. 2015년에는 한국 ODA의 역사와 코이카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개발협력역사관을 개관했다.

05 선진국형 ODA를 시작하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한국이 ODA 확대와 선진화 노력을 바탕으로 2010년 1월 1일에 무상원조의 선진국 클럽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다. 국제사회로부터 정식 선진 공여국 지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원조받던 수혜국이 DAC 정식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것은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06 글로벌 상생 가치를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다 전국 6개 거점에 국제개발협력센터 개설



코이카가 2016년부터 전국 6개 국립대학에 국제개발협력센터를 개설했다. 국제개발협력센터는 지역 ODA 사업의 핵심 전초기지로 지역 인재와 기관, 기업에 맞춤형 교육, 설명회,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민과 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ODA 참여 기회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게 됐다.

07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잡다 민관협력 네트워크 확대

국제 원조 규모가 커지고, 개발협력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민간이 가진 유연함과 현장 전문성의 결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코이카가 1995년 NGO 지원사업을 시작해 2009년 공공민간협력사업을 도입했다. 2012년에는 개발협력연대를 출범해 시민사회,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했다.

08 빠르게 재난 현장으로 해외긴급구호대(KDRT) 활약



지구촌에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달려간다. KDRT는 2007년 설립 이후 2010년 아이티 대지진, 2013년 필리핀 태풍 하이옌,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바이러스, 2015년 네팔 대지진, 2018년 라오스 댐 붕괴, 2023년 튀르키예 지진 및 캐나다 산불 당시 크게 활약하며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했다.

09 K-방역으로 지구촌을 구하다 위기대응사업 ABC 프로그램 실행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코이카가 개발협력을 통한 코로나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ABC프로그램'을 실행했다. 2020년 한 해에만 총 7,500만 달러를 투입해 전 세계 116개국을 대상으로 진단 키트, 마스크, 백신 보관용 초저온 냉동고 등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10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넓히다 ODA 동반성장 선도

코이카가 청년 혁신가들의 아이디어와 스타트업의 첨단 기술을 개발협력에 접목하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 프로그램인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및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을 통해 기업들과 함께 개도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국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2015년 10개 기업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2020년 기준 7개 프로그램에 누적 사업 76개, 기업 62곳이 참여하는 규모로 성장하며 국내 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ODA 사업의 효과를 높였다.

문화로 여는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 알리기 넘어 협력국 역량 강화로… 문화 ODA

캄보디아 시엠립. 앙코르 유적지 한쪽에서 현지 기술자들이 무너진 돌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다. 코이카와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한 '프레아피투 사원 복원정비사업' 현장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무너진 사원을 복원하는 일이 아니다. 한국 전문가와 함께 복원 기술을 익힌 캄보디아 기술자들이 현지 기술 교육과 초청 연수를 통해 스스로 문화유산을 지킬 역량을 갖춰가고 있다.

협력국 중심으로 다시 짜는 문화 ODA 전략

문화 시설을 조성하거나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력국이 자신들의 문화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어가도록 돕는 것. 이것이 한국의 '문화 ODA'가 지향하는 방향이다. 문화는 한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바탕이면서, 경제와 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하다. 개발협력에서 협력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사업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조건으로 꼽히는 이유다.

한국이 문화 ODA에 주목하는 데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하나는 K-컬처의 확산이다. 전 세계로 퍼져나간 한국 문화는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높였고, 개발협력에서도 문화를 매개로 한 협력의 가능성을 넓혔다. 다른 하나는 경험이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며 문화산업을 키워온 나라다. 이 경험은 협력국과 나눌 수 있는 실질적인 자산이다. 정부가 문화 분야를 무상원조의 핵심 분야로 설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문화는 개발협력의 독립 분야이면서 동시에 다른 분야의 성과를 높이는 수단으로도 중요해졌다. 문화 ODA의 핵심은 협력국의 역사와 전통, 가치,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존중하는 데 있다. 더 많은 사람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문화창조 산업의 기반을 키우며,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한국의 문화를 전하는 일'이 아니라, 협력국이 자신들의 문화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일에 가깝다.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태권도·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화 ODA를 실현하고 있다. 사진은 올해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 봉사단 5기 활동 중 현지 어린이들이 태극기와 한복 만들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동안 한국의 문화 ODA는 여러 기관을 통해 추진돼 왔지만, 소규모 사업이 여러 곳에 나뉘어 진행되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협력국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여러 사업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며,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화 ODA를 더욱 전략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의 '무상 분야 문화 ODA 추진전략'*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외교부는 '미래세대의 다양성과 창조적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비전으로, '청년의 문화 접근성 증진 및 문화창조 산업 혁신 역량 강화'를 전략 목표로 제시했다. 핵심 분야는 문화예술 교육과 문화 인프라, 문화창조 산업의 제도 정비와 인재 양성, 문화·자연유산의 보호와 지속 가능 관광 생태계 구축으로 정리된다. 협력국 청년들이 문화를 더 쉽게 접하고, 직접 창작하고, 그것을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범정부 '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은 범위를 더 넓게 잡는다. '협력국 중심의 문화 가치 실현 및 지속 가능한 상생형 문화협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문화예술 발전 기반 마련, 문화창조 산업 성장 지원, 생활문화 ODA, 기존 ODA 사업에 문화 요소를 더하는 ODA+, 문화유산 보호 및 관광산업 성장 지원, 다각적 파트너십 확대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한다. 문화 ODA를 문화예술이나 문화유산에 한정하지 않고, 생활문화와 스포츠, 언어 교육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앞선 두 전략이 정부 차원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코이카는 우리 문화 ODA 중점 분야 중 코이카의 강점과 전문성을 고려해 이를 현장 사업으로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이행계획***을 제시한다. 우리 정부 '무상 분야 문화 ODA 추진전략'의 전략 목표를 이행할 중간 목표로서 문화창조 산업 활성화, 문화·자연유산 가치 확산,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을 3대 핵심사업으로 설정했다.



코이카는 2011년 베트남 후에시 향강 수변공간을 정비하며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을 지원했다. 사진은 현지 주민들이 향강 보행교를 걷고 있는 모습

콘텐츠·관광·유산으로 넓어지는 문화 협력

문화창조 산업 활성화는 해외봉사단 사업에서 확인된다. 코이카는 'K-컬처'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수십 년 전부터 한식 조리, 태권도, 한국어 등을 가르치는 봉사단을 꾸준히 파견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우즈베키스탄에도 프로젝트 봉사단을 파견해 한국어 교육 활동을 하며 인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현지 청년과 주민이 언어와 음식, 스포츠를 매개로 서로 배우고 교류하는 방식이다.

문화·자연유산 가치 확산 분야에서는 캄보디아 사업이 대표 사례다. 2015년부터 추진한 프레아피투 사원 복원정비사업은 이후 코끼리테라스 보존·복원 사업으로 이어지며, 유적 복원을 넘어 현지 기술 교육과 초청 연수를 통해 캄보디아 스스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다. 또한 뚜얼슬렝 박물관 사업은 문화유산 보존의 의미가 물리적 복원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코이카는 2014년부터 유네스코와 함께 크메르루주 기록물을 디지털화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 이 사업은 훼손되기 쉬운 기록을 보존하는 기술 협력이면서, 캄보디아 현대사의 아픈 기억을 다음 세대가 마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기도 하다. 한 민족의 역사적 기억과 정체성, 평화의 가치를 지키는 일 역시 문화 ODA가 확장해가는 중요한 방향이다.



코이카는 2014년부터 유네스코와 함께 뚜얼슬렝 박물관의 기록물 디지털화와 아카이브 구축, 보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의 대표 사례는 베트남 후에시다. 베트남 마지막 응우옌 왕조의 수도였던 이 도시는 황성과 향강 등 풍부한 문화·자연 관광자원을 품고 있다. 코이카는 2011년 도시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시작으로 향강 수변공간 정비, 문화관광 데이터베이스와 스마트 거리, 다비엔섬 복합문화공간 및 보행교 조성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이어왔다. 후에시 사업은 문화관광 자원을 도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문화 ODA의 방향을 보여준다.

문화 ODA의 중심에는 협력국의 문화와 사람이 있다. 한국의 문화산업 성장 경험과 코이카의 개발협력 전문성은 협력국이 자신의 이야기와 유산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데 쓰인다. 문화 ODA가 단순한 문화 소개를 넘어 새로운 개발협력의 통로로 주목받는 이유다. K

* 무상 분야 문화 ODA 추진전략(2026~2030)(2026.4. 관계부처 합동)

** 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2026.5.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 문화 ODA 이행계획(2026.6. 코이카)

이제 원조도 인공지능으로 한다

개발협력 패러다임 바꾸는 AI ODA



코이카는 개발도상국 스스로 AI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역량 개발 지원과 국제사회와의 전략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2025 KOICA 기후 AI 포럼' 현장

인공지능(AI)이 ODA 분야에서도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사회·경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핵심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선진 공여국과 국제기구에서도 AI를 ODA에 접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AI 기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이카에서도 ODA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AI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달라지는 개발협력 AI ODA 전환 본격화

코이카가 AI를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 전략을 본격화한다. 한국 ODA 분야의 최상위 국가 종합전략인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발맞춰,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ODA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AI 기반 개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 정부는 모든 인류가 AI의 혜택을 고루 향유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AI 발전으로 모든 국가와 모든 이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를 만들자는 것이다. 코이카는 이 같은 포용적 상생주의 관점에서 한국 AI 경쟁력을 높이고, 개발도상국의 AI 자주권 확립에도 기여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코이카는 한국과 개발도상국이 상생하며 AI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에 AI 정책 로드맵 컨설팅, 데이터 수집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한다. 개발도상국 에너지 환경에 맞는 적정 기술을 탑재한 소형 한국형 AI 모델을 발굴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는 파트너십 구축과 글로벌 이니셔티브도 선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스스로 AI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코이카 내부의 AI 역량과 활용도 확대해 업무 효율화를 이룰 방침이다.

교육·보건·농업 분야까지…
현장에서 이미 작동 중인 'AI ODA'

코이카는 오래전부터 AI 소외계층도 관련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청년 맞춤형 AI·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는 ODA 사업을 펼쳐왔다. 일례로 가나, 탄자니아에서는 여성 청소년을 위한 수학·과학 교육을 지원하고, 르완다에는 소프트웨어 특성화고를 건립했다. 교육 분야뿐만이 아니다. 보건·농업·기후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AI 기술을 적용, 확산해오고 있다. 한국보건사업진흥원, 의료 AI 기업 루닛과 함께 페루에서 진행 중인 'AI 기반 암 조기진단 및 의료역량 강화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코이카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과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국 AI 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어오고 있다. 에이아이웍스(AIWORKX)는 IBS 기업으로 선정돼 캄보디아 사람들이 모국어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크메르어 기반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사업에 돌입했다. 위플랫은 CTS 전 단계*에 참여해 음향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누수를 탐지하는 설루션을 인도네시아에 도입해 사업화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IBS 기업으로 선정돼 누수관리 기반과 인적 역량 강화, 설루션을 현지 전역에 확산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코이카의 AI ODA 행보는 사업을 넘어 국제사회와의 전략적 협력으로도 확대 중이다. 코이카는 2024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함께 '기후 미래 파트너십(AI4ClimateAction)'을 맺고 개발도상국 내 기후행동 AI 활용 확산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작년부터 UNFCCC와 국내외에서 기후 AI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확산하는 포럼, AI 기후 설루션을 발굴하는 글로벌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기후 AI 격차 해소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 CTS는 Seed0(역량강화), Seed1(ODA 테스트베드), Seed2(기술사업화) 3단계로 구성돼 있다.

Feature Interview

윤석원 에이아이웍스 대표

"AI ODA는 단순한 원조 넘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만드는 일"



윤석원 대표

Q 에이아이웍스(AIWORKX)는 어떤 기업인가요?

AI 데이터 구축부터 모델 개발, AI 에이전트, AI·SW 검증까지 AI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설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고용하면서 독거노인 및 탈북인을 위한 AI 기반 케어콜 등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용적 AI 생태계를 구축하며 '사람 중심의 AI'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코이카 IBS 기업으로 선정돼 올해 3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 AI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언어 AI 및 현지화 AI 기술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눈에 띕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현재 글로벌 생성형 AI 생태계는 영어·중국어·한국어 등 대규모 언어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크메르어는 대표적인 저자원 언어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Common Crawl(인터넷 공개 데이터를 수집·축적하는 비영리 웹 아카이브)' 기준 영어 데이터 비중은 약 41%인 반면 크메르어는 약 0.009%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AI 학습용 데이터 자체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즉 글로벌 AI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언어·국가에 대해 AI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Q 이번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단순히 AI 기술이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안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AI 산업 생태계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이 AI 기술을 소비하는 입장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지 언어 데이터, 현지 인재, 현지 서비스, 그리고 현지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번 사업을 통해 크메르어 기반 AI 데이터와 서비스를 구축하고, 현지 청년들이 AI 데이터 구축과 에이전트 운영, 디지털 서비스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니라 미래 산업에 연결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AI 접근성의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AI 생태계는 영어와 일부 선진국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와 같은 저자원 언어 국가에서도 자국 언어 기반의 AI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교육·행정·복지·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AI의 혜택을 더욱 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캄보디아 현지 대학, 정부기관, 스타트업, 청년 인재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AI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순히 한국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마치는 구조가 아니라, 현지에서 스스로 AI 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코이카로부터 받은 지원이나 앞으로 받게 될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에이아이웍스는 코이카 IBS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약 2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 자체보다 코이카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캄보디아의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이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한 단기 프로젝트 지원이 아니라, 현지 정부·교육기관·공공기관·기업들과의 협력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생태계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인재·산업·정책이 함께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코이카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공공 협력 경험은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 코이카에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코이카가 공익적 AI를 실천하는 소셜 벤처를 더 많이 발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갔으면 합니다. 단순한 기술 수출을 넘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한국형 AI 임팩트 모델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확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AI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국가만의 기술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삶의 질과 기회의 격차를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발도상국이 AI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K

2026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국제사회가 협력해 개도국 AI 접근성 높여야”

‘2026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UNFCCC Climate Week)’ 행사가 지난 4월 21~25일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매년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전 세계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모여 기후행동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코이카는 ‘기후 미래 파트너십(2024~2027)’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3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과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기후행동을 위한 AI 활용’을 주제로 기후주간 공식 세션을 열었다. 공식 세션에는 각국 정부·개발협력기관 관계자, AI 전문가, 기후 테크 스타트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AI를 활용한 개발도상국 기후행동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코이카가 ‘2026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행사 기간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기후행동을 위한 AI 활용’이라는 주제로 공식 세션을 개최했다.

유엔(UN)은 2024년 9월 발간한 보고서 ‘인류를 위한 AI 관리 체계(Governing AI for Humanity)’에서 인공지능(AI)을 인류 공동 과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주목하며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UNFCCC는 2023년 열린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AI 활용 협력을 플랫폼으로 ‘기후행동을 위한 AI 이니셔티브(AI for Climate Action Initiative)’를 공식 승인했다. 이듬해 코이카는 UNFCCC와 ‘기후 미래 파트너십’을 맺고 이니셔티브의 핵심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4월 23일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 그랜드홀에서 ‘개발도상국의 기후행동을 위한 AI 활용’을 주제로 열린 기후주간 공식 세션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AI 기술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연장선상이었다. 노라 함라지(Noura Hamladji) UNFCCC 부사무총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AI는 실용적이고 강력한 기후행동을 위한 도구지만 이 도구를 모두가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데이터, 인프라 등 AI 접근성이 제한적인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기 전에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조와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윤영 코이카 사업전략·지역사업I본부 이사는 지난해 개최한 AI 기술 국제 공모전 ‘기후행동을 위한 인공지능 어워드 2025(AICA Award 2025)’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한국 유역통합관리연구원(IWMI)의 AI 기반 농업·관개 설루션 ‘사피르(SAFIR)’를 언급하며 파트너 국가에 권한을 주고, 지역 기술 전문가들의 주체적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페드로 이보 페라즈 다 실바(Pedro Ivo Ferraz da Silva) UNFCCC 기술집행위원회(TEC) 의장은 이 자리에서 UNFCCC 기술 메커니즘의 ‘기후행동을 위한 AI 이니셔티브’와 UNFCCC 사무국 기술집행위원회 활동을 소개했다. 페드로 의장은 AI 기반 기후 모델링 연구 성과와 함께 ‘위성 데이터, 머신러닝을 활용한 가뭄·홍수 예측 사례를 소개했으며, 농업 최적화와 식량 안보 강화에 AI가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페드로 의장은 “혁신을 통해 실질적인 임팩트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며 “책임 있는 AI 설루션 구현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라 함라지 UNFCCC 부사무총장이 개회사를 통해 국제사회에 더 강력하고 긴밀한 다자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윤영 코이카 이사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구축한 AI 기본법과 다채로운 경험을 파트너 국가에 공유해 AI 프레임워크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I는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회식 이후 두 개의 토의 세션이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은 ‘기후행동을 위한 AI: 다양한 영역에서의 해결책’을 주제로 AI 혁신가, 글로벌 기업·국제기구·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조유리 서울대학교 선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알리사 루앙그라트(Alisa Luangrath) 유역통합관리연구원 국제협력팀장은 ‘AICA Award 2025’ 수상 설루션 ‘사피르’의 실제 적용 사례를 설명했다. 알리사 팀장은 “라오스 인구의 70%가 농업인구지만 실제 관개 설비를 활용하는 인구 비율은 50%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모작에 맞는 기후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의 차이, 밭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 건기 때 3~4개월간 관개 설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 기후위기가 불러온 현실적 문제점을 언급했다. 사피르를 통해 관개 설비를 구축하고, 의사 결정 체계의 부재를 지원하며, 마을 단체들이 사피르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스킬 함양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 설루션을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기후행동을 위한 AI: 다양한 영역에서의 해결책’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토의 세션의 좌장(가운데)과 발표자들

2017년 설립된 e-모빌리티 기반의 탄소중립 플랫폼 기업 ‘베리워즈(VERYWORDS)’의 이주희 팀장은 발표자로 나서 베리워즈가 2025년부터 캄보디아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판매해 2035년까지 최소 68만t에서 최대 588만t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베리워즈는 코이카의 지원으로 프놈펜에서 약 20㎞ 떨어진 키엔 스바이 산업단지에 캄보디아 최초로 전기 오토바이 제조 시설을 마련하고, 배터리를 구독형으로 전환해 전기 오토바이 가격을 낮추는 등 e-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베리워즈는 배터리 진단과 사용자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AICA Award 2025'에서 라오스 맞춤형 AI 기반 스마트 농업 설루션 '사피르'로 최종 우승한 알리사 루앙그라트 유역통합관리연구원 팀장이 코이카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사피르'를 실제 라오스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안드레아스 갈라툴라스(Andreas Galatoulas)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데이터·AI 총괄이 에콰도르 조기경보시스템 활용 사례를, 윤석원 에이아이웍스(AI-WORKX) 대표가 'AI 기반 기후 대응 설루션과 개발도상국 적용 전략'을 발표했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임을 강조한 윤석원 대표는 개발도상국의 데이터 부족과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량화된 AI 모델과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제안했다. 또 농업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토양·기후 데이터를 분석, 가뭄과 홍수 피해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소개했으며, 에너지 관리 부분에서 도시 전력망 최적화 및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AI 설루션 등 다양한 사례를 전했다. 윤 대표는 개발도상국에 맞는 맞춤형 AI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데이터 프라이버시, 알고리즘 투명성 등 AI 윤리 문제를 국제 규범으로 정립할 필요성 등 정책적 제안도 아끼지 않았다.

두 번째 세션은 최예지 디아이랩 연구소장을 좌장으로 '격차 해소: 기후행동 지원을 위한 수요 대응 및 AI 활용 확대'에 관해 국제기구·개발도상국·공여기관 관계자들이 자리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세션에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AI 격차 해소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토모코 후루사와(Tomoko Furusawa)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파트너십·대외협력사무소장은 "기후 관련 데이터의 부족으로 AI 모델을 훈련하기 어려운 것이 개발도상국의 현실"이라고 되짚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데이터 공유 플랫폼과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AI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데이터·기술·자금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AI 활용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단순히 AI 설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현지 전문가 양성과 기술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AI는 선진국만의 기술이 아니라 인류 모두가 공유해야 할 글로벌 자산"임을 공고히 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경아 코이카 기후환경경제개발팀 과장은 "'기후를 위한 AI'는 '개발을 위한 AI'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닌 현지 주도의 역량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AI의 혜택이 보편적 공공재로서 모든 국가와 공동체에 도달해야 한다는 원칙)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김경아 과장은 "다만 아프리카·중남미 현장의 75~83%가 AI 인프라를 빈약하다고 평가하고, 50~60%가 데이터 품질을 나쁘다고 응답하는 현실에서 ODA 무상원조로 초기 실증 비용을 지원하되 성과 기반 민관 협력과 가교 재원을 연계해 상업적 지속가능성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재원 모델이 필수적이며, 궁극적으로 정부·지역사회·민간·개발파트너·연구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해야만 AI가 기후위기 최전선의 국가들에 실질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경아 코이카 기후환경경제개발팀 과장은 AI 기반 기후 행동이 가능성을 넘어 이행 단계에 진입한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상(온라인)으로 참여한 에텔 나무리(Ehtel Namuri) 파푸아뉴기니 기후변화개발청 ICT 매니저 역시 "AI는 개발도상국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질적 도구"임을 강조하며 "단순히 예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응 체계와 면밀히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에텔 매니저는 기존 기후 모델은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컸던 반면 AI가 위성 데이터, 기상 관측, 지역 센서 데이터 등을 통합해 홍수·가뭄·태풍 발생 가능성을 더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이카와 UNFCCC가 공동 주최한 공식 세션 '개발도상국의 기후행동을 위한 AI 활용'은 4시간여의 활발한 토의와 공론 속에 마무리됐다. 세션별로 발표자들의 다양한 관점, 기후행동과 관련한 AI 설루션 적용 사례 등이 제시돼 흥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AI가 기후 대응의 핵심 도구'라는 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격차를 해소하고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기술·인프라·교육·정책·국제협력 등 국제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실에 십분 공감하며 공론의 장을 넘어 '이행의 가속화'에 뜻을 모았다.

Feature Interview 1

에텔 나무리 파푸아뉴기니 기후변화개발청 ICT 매니저

"AI와 조기경보 시스템이 주민 생존 결정해"



에텔 나무리 매니저

Q 현재 파푸아뉴기니가 겪고 있는 기후재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파푸아뉴기니는 최근 기온 상승과 강수량 변화, 강한 폭풍 증가,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에서는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오면서 침수와 해안 침식 피해가 늘고 있고, 일부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재난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존, 그리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취약계층일수록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Q 기후재난 대응 과정에서 데이터·기술·인력 부족 등 가장 큰 제약 요인은 무엇이었나요?

파푸아뉴기니는 AI 확산 과정에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한적인 인프라입니다. 파푸아뉴기니는 인터넷 연결 부족, 불안정한 전력 공급, 열악한 디지털 인프라로 인해 특히 농촌 및 도서 지역에서 AI 시스템 구축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부족 및 분절화입니다.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파푸아뉴기니에서는 기후 및 환경 데이터가 불완전하고, 기관 간 데이터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으며, 지역사회 단위 데이터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역량 부족입니다. 파푸아뉴기니는 AI 및 데이터 과학 전문 인력, 지역 연구 생태계,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인력이 부족합니다. 마지막은 분절된 재원 구조입니다. 파푸아뉴기니는 기후 관련 사업들이 단기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확장성과 지속가능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Q 조기경보 시스템이나 기후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가장 기대하는 기능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파푸아뉴기니의 현실에 맞는 실용적이고 비용 부담이 적은 AI 기술이 개발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재난 발생 전에 위험을 빠르게 감지하고 주민들에게 미리 알릴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현재 많은 AI 기술은 높은 수준의 장비와 대규모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는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나 민간기업, 혁신가들이 현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와 NGO,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검증된 모델을 점차 확대해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AI 기반 기후기술 도입이 지역 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나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주민들이 기후재난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홍수나 폭풍 위험을 사전에 알 수 있다면 주민들은 더 빠르게 대피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날씨와 토양 정보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한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현지화·교육 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역량 강화와 교육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식 이전과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지 기관들은 AI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유지·운영하기 어렵습니다.

Q 해결해야 할 큰 장벽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과제는 단순히 기술 부족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 그리고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AI와 같은 신기술도 지역 현실에 맞게 적용되지 않으면 실제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파푸아뉴기니는 이미 기후 대응과 자연 기반 해법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왔습니다. 앞으로는 AI 같은 새 기술을 현장에 맞게 적용하고, 이를 실제로 확산할 수 있는 장기 파트너십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협력에 함께 투자한다면,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기후위기에 강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Feature Interview 2

페드로 이보 페라즈 다 실바 UNFCCC 사무국 기술집행위원회(TEC) 의장

“이제는 논의를 넘어 이행할 때”


페드로 이보 페라즈 다 실바 의장

Q 코이카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맺은 ‘기후 미래 파트너십(2024~2027)’과 기존 기후협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행 중심’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기후행동과 관련해 AI, 디지털 기술의 역할과 활용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펼쳐지는 가운데 코이카와의 파트너십이 이행 중심 기후협력 체제의 든든한 바탕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Q UNFCCC 제3차 기후주간의 공식 세션으로 ‘개발도상국의 기후행동을 위한 AI 활용’에 관한 주제로 공론의 장이 펼쳐졌는데요. ‘AI 기반 기후행동’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2024년은 기온 상승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 극단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급속도로 악화한 기후 비상사태를 고려할 때, 국제사회가 협력을 통해 더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논의해야 하며, 논의를 넘어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AI는 기후행동을 가속화하고, 기후 문제로 고통 받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후행동을 위한 AI 활용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발도상국은 기술, 인프라, 데이터 등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설루션을 개발·도입하는 데 모든 자원이 부족합니다. 개발도상국이 기후 설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후행동을 위한 AI’와 같은 이니셔티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개발도상국의 기후행동을 위한 AI 활용 부문에서 민간기업과 스타트업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간기업과 스타트업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혁신을 지원하거나 혁신을 위한 수단을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이냐, 민간기업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발도상국 내 스타트업의 참여도 함께 진행돼야 합니다. 로컬 스타트업은 지역사회가 당면한 기후 문제, 지역적 특성과 환경, 지역의 현실 등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 전문가이기에 기후위기 설루션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필수적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설루션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지 문제와 해결책을 잘 연결할 수 있습니다.

Q UNFCCC 사무국 TEC에서는 AI 기술 제공자와 개발도상국 간 ‘실질적 연결’을 어떻게 기획·설계하고 있나요?

필요한 곳(수요)과 줄 수 있는 곳(공급)을 AI 데이터 기반으로 정밀하게 연결하는 기술 체계를 ‘매칭 메커니즘(Matching Mechanism)’이라고 합니다.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전선에서 받지만 이를 해결할 재원·기술·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면 선진국이나 국제기구, 민간기업은 지원할 자원이 준비되어도 정확히 어디에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 매칭 메커니즘이 바로 이 거대한 정보 불균형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개발도상국이 국제기구나 글로벌 투자사로부터 기후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한데, AI 매칭 메커니즘은 이를 해결해줍니다. 개발도상국 정부, 현지 단체는 복잡한 펀딩 제안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투자자들은 리스크 평가가 어려워 투자를 망설입니다. 이때 AI가 개발도상국 현지의 기후 위험도, 예상 탄소 감축량, 프로젝트의 타당성 데이터를 분석해 해당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성격의 글로벌 녹색 펀드나 사회적 책임 투자(ESG) 자본을 자동으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마다 겪고 있는 기후위기 양상이 달라 각각에 적합한 설루션이 필요한데, AI 매칭 메커니즘은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떤 곳은 가뭄이, 어떤 곳은 해수면 상승이나 홍수가 문제입니다. 이때 AI가 현지 기상데이터를 분석, 해당 지역의 취약점을 정밀 진단한 후 세계의 기후 테크(Climate Tech) DB를 검색해 그 지역의 토양과 기후 조건에 가장 적합한 적정 기술을 매칭합니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현지 전문가 양성과 지식 공유가 필수적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기후 정책 담당자나 현지 연구원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 영역을 파악하고 전 세계의 기후변화 전문가, 연구기관, 교육 프로그램을 매칭해 지식 전수와 파트너십 구축을 자동화·최적화합니다.

Q AI 매칭 메커니즘이 조속히 도입돼 실질적 효과를 거둬야 하겠네요?



페드로 이보 페라즈 다 실바 의장은 한국을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해가 높은 나라로 평가하며 ‘이행 중심’의 파트너십에도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라고 말했다.

AI 매칭 메커니즘은 개발도상국 기후행동에 있어 자원 낭비를 줄이고,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알맞은 자원(재원·기술·전문가)이 가장 빠르게 전달되도록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디지털 중개자, 디지털 해결사와 같습니다.

UNFCCC는 지난해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당사자총회(COP30)에서 개발도상국의 기술적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벨렝 기술이행 프로그램’을 공식 발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파트너십 촉진 및 매칭 메커니즘의 구체화’입니다. UNFCCC는 AI 매칭 메커니즘을 통해 도출된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녹색기후기금(GCF), 지구환경기금(GEF) 등 글로벌 금융기관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 협상 과정에서 국가별 기후 기술 수요와 투입 가능한 재원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매칭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다각도로 파트너십을 추진 중입니다. 벨렝 기술이행 프로그램의 공식 발족으로 중요한 한 발을 뗐으니 앞으로 실질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기술이행에 나서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Q 개발도상국의 기후행동을 위한 AI와 관련해 2~3년 내 가장 기대하는 성과는 무엇인가요?

개발도상국에 AI 기술을 더 넓게, 더 많이 도입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홍수·가뭄·폭염·산불 등 기후 위험을 예측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성공 사례 중 하나입니다. 군소도서국(SIDS) 중 실제 조기경보 시스템을 갖춘 곳이 현재 40%에 불과한 만큼 이 비율을 더 높여가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제 조국 브라질 역시 2024년 4~5월 심한 폭우로 인해 도시가 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기경보 시스템을 갖췄다면 국가 기반시설의 손실을 막고, 인명 피해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Q 코이카와 UNFCCC의 파트너십은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요?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비약적 발전을 통해 단기간 성장,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를 전 세계 수많은 개발도상국이 닮고 싶어 합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해가 높은 나라이며, 구체적 행동을 수반하는 ‘이행 중심’의 파트너십에도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AI 기술 분야를 리드하고 최첨단 기술 구축에 탁월한 한국과의 협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행 수단인 ‘기술 개발 및 이전’의 가속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AI는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이면서 그 자체로 많은 환경적 발자국을 남긴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UNFCCC와 코이카는 기후 미래를 함께할 파트너로서 에너지, 물, 자재 소비와 같은 AI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책과 완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더불어 많은 기업과 기관, 단체에서 내놓고 있는 기후 설루션을 실제 개발도상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나갔으면 합니다. K

코이카 기업-연수 연계 실습 프로그램

기업도 배우고 연수생도 성장한다

개발도상국의 미래 리더와 한국 기업이 한 팀이 된다면 현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코이카가 해외 석·박사 연수생과 한국 기업을 연결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현지 전문성과 한국의 혁신 기술이 만나는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업·연수생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

코이카가 개발도상국의 핵심 인재와 한국 기업을 연결하는 '코이카 기업-연수 연계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코이카 학위연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석·박사 과정 연수생과 코이카 기업협력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을 매칭해주는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의 큰 특징은 기업과 연수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은 사업 대상국 출신의 정책 전문가와 협력하며 현지 제도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연수생은 한국 기업이 수행하는 개발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해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참여 대상 기업은 현재 코이카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이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다. 연수생은 코이카 학위연수사업에 참여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가운데 선발되며,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박사과정 연수생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실습은 최소 2주에서 최대 2개월 동안 진행된다. 대면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 접근성 등을 고려해 비대면 또는 혼합형 방식도 허용한다. 다만 일반 채용형 인턴십과 달리 교육 목적의 비근로성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연수생은 기업 멘토의 지도 아래 실습과 학습 중심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프로그램 운영 과정도 체계적으로 설계됐다. 코이카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과 연수생의 전공·경력 정보를 바탕으로 매칭을 지원한다. 이후 기업은 직무기술서를 제출하고, 연수생은 지원서를 작성해 신청한다. 서류 심사와 필요 시 인터뷰를 거쳐 최종 참여자가 선정된다. 코이카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현지화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개발도상국 인재들이 한국의 혁신 기술과 개발협력 경험을 직접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연수생 간 협력이 일회성 경험에 그치지 않고 향후 사업 파트너십과 정책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코이카 기업-연수 연계 실습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 석·박사 과정 연수생과 코이카 기업협력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을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연수생은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기업은 사업 대상국 출신 연수생을 통해 현지 제도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Feature Interview

윤경호 태그하이브 경영지원팀 부장

"개도국 시장을 두드리는 기업이라면 꼭 추천합니다"



윤경호 부장

Q 코이카 기업-연수 연계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태그하이브는 '클래스 사티(Class Saathi)'라는 AI 교육 플랫폼을 개발해 현재 한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약 1만 5,000개 이상의 교실에 설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말레이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교육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시장, 특히 나이지리아와 서아프리카 지역은 인구 규모나 교육 수요 측면에서 잠재력이 매우 크지만 현지 교육 환경이나 정책, 학교 인프라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문헌조사만으로는 실제 현장 감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느끼던 차에 '코이카 기업-연수 연계 실습 프로그램'을 알게 됐습니다.

Q 실습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연수생의 역량이나 강점은 무엇이었나요?

'살아있는 현지 지식'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 교육 현장에서 공무원으로 직접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연수생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보고서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때 어떤 심리적 저항감을 갖는지,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전기나 인터넷이 얼마나 불안정한지와 같은 생생한 이야기들이 저희 제품 개선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박사과정 연구자답게 분석의 체계성도 탁월했습니다. PESTLE 분석, SWOT 분석 등 학문적 방법론을 기업의 실제 사업 과제에 자연스럽게 녹여내 단순한 자료정리 수준을 넘어 경영진이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분석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영어 소통 능력도 뛰어나 저희 임직원과 언어적 불편함 없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했고, 무엇보다 스타트업의 불확실한 환경에 잘 적응하며 자기주도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Q 이번 프로그램이 귀사의 개발협력 사업이나 해외 진출에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태그하이브는 교육 기술기업으로서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교육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프로그램은 저희가 아프리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한층 깊고 넓게 만들어 준 경험이었습니다. 연수생이 공유한 나이지리아 시장 진입 전략과 현지화 방향은 저희가 서아프리카 사업을 본격적으로 기획할 때 첫 번째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지 교육 당국과의 협력 방식, 현지 파트너 발굴 전략 등은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어려웠던 부분인데, 연수생의 네트워크와 경험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일회성 협력에서 끝나지 않고, 연수생이 귀국한 이후에도 나이지리아 현지 교육 당국 및 잠재 파트너와의 네트워킹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턴십이 장기적인 사업 협력의 씨앗이 된 셈입니다.

Q 프로그램 참여를 고민하는 다른 기업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개발도상국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현지화된 기술력'을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이 프로그램에 꼭 한 번 참여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희가 경험해 본 결과,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인턴 채용'이 아닙니다. 코이카 연수생들은 이미 해당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한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 중인 고급 인재입니다. 현지 정책 환경, 행정 구조, 사회문화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별도 비용 없이 현지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6주라는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사전에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명확히 정하고, 연수생이 처음부터 집중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잘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도 초반에 연수생을 위한 사전자료를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했더라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의 진짜 가치는 인턴십이 끝난 후에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연수생이 귀국한 뒤에도 현지 네트워크와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단기 컨설팅이나 시장조사 용역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자산입니다. 개발도상국 시장을 두드리고 싶은 기업이라면 적극 활용해 보시길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윤경호 부장이 'KOICA 기업-연수 연계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마이클 아무시탄 연수생(오른쪽)과 식사하고 있다.



코이카 신입사원 4인이 1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 그림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희연 조달1팀 전임, 정의서 긴급대응팀 전임, 김채원 동남아시아1팀 전임, 김호연 중동팀 전임

한국 ODA 새로운 35년의 문을 열다, 신입사원 4인 인터뷰

코이카 입사 노하우가 궁금하다고요?

Q 입사 전에 상상했던 코이카와 실제, 다른 점이 있나요?

진희연 공공기관 특유의 딱딱한 분위기를 상상했는데, 업무 환경이 훨씬 역동적이었어요. 끊임없이 예상치 못한 이슈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직원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움직이는 걸 보면서, 무척 다이내믹하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의서 첫 직장이라 직장 생활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있었는데요. 동기들과 팀원들이 서로 챙기는 따뜻한 분위기가 있어서 큰 힘이 됐습니다. 입사 후에는 직원들이 끊임없이 공부하는 학구적인 조직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사업 분야의 전문 지식은 물론, 이해관계자와 협력국에 대한 이해까지 필요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것 같아요.

Q 코이카 입사를 꿈꾼 계기는 무엇인가요?

정의서 평소에 누구나 서로를 해치지 않고, 기꺼이 도움을 나누고, 하루하루를 평화롭게 잘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이잖아요. 개발협력 관련 경험은 없지만 입사 전 방송국 인턴 기자로 일했는데요. 코이카 업무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이해하며, 소통해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더라고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조율해 본 경험들이 지금의 업무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호연 개발협력 분야 국제기구 인턴 경험을 통해 코이카의 사업과 역할을 접했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해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코이카는 제가 전문성을 꾸준히 쌓고 개발협력 사업 경험을 통해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개발협력 전문가로 성장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Q 코이카 구성원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요?

김채원 추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기보다 주어진 기회를 실행으로 연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에 코이카 입사를 준비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서류 합격, 필기 합격을 밟아가면서 주어진 기회를 잘 잡으니 최종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진희연 실행력입니다. 저는 과거에는 준비를 완벽하게 한다는 강박 때문에 시작을 미루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빠른 실행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접근법을 바꿨습니다. 입사 준비를 할 때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문제를 먼저 풀어보며 부족한 부분을 확인했고, 일단 번역을 해보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어요. 이렇게 할 때 학습 속도와 개선 속도가 함께 빨라지더라고요.

"면접 답변은 늘 두괄식으로, 핵심이 먼저 전달되게 연습했어요"

Q 코이카 입사를 꿈꾸는 예비 후배들에게 합격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을까요?

정의서 저는 면접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면접관들도 하루 종일 면접을 보다 보면 지치시잖아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내 답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포인트가 있는 문장들을 말하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희연 영작과 번역 시험 준비가 어려웠는데요. 기사나 자료를 직접 발췌해 번역 및 영작을 해보고, AI 툴을 활용해 피드백을 받으며 표현을 지속적으로 교정했습니다. 제가 취약한 부분을 반복 학습으로 보완했고요. 동시에 코이카에서 발간하는 연구 자료들을 읽으며 국제개발 이슈의 흐름을 파악하고, 코이카가 관심을 두는 분야나 방향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코이카 개발협력커리어센터(job.koica.go.kr)를 적극 활용하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논술 구조화 등 실질적인 역량 향상에 도움을 받았거든요. 특히 AI 활용 학습 방법이나 글의 구조를 잡는 방식 등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익혀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진희연 조달1팀 전임

김호연 서류 접수 전까지는 자격증이나 제2외국어 등 확보할 수 있는 가점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편이거든요. 필기시험은 NCS 과목별·유형별 기본 풀이법을 먼저 확실히 익힌 뒤, 모의고사를 반복적으로 풀이하며 실전 감각을 강화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 시험에도 응시해 시간 관리와 실전 대응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논술은 종이 신문을 꾸준히 읽으며 시사 이슈를 접하고 시야를 넓혔어요. 코이카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와 무상원조 관련 국가 전략 자료도 정독했고요. 영작과 번역은 외신 기사와 국문 기사를 선정해 직접 번역해 본 뒤, AI 도구를 활용해 첨삭을 받으며 표현과 문장 구조를 교정했습니다. 면접 스터디도 많이 했는데요. 답변은 항상 두괄식으로, 핵심이 먼저 전달되도록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김채원 '왜 개발협력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저만의 명확한 답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과 역량을 돌아보면서 코이카에서 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해봤어요. 이 과정을 거치니 단순한 동기가 아니라 경험과 연결된 일관된 논리가 정리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자소서의 글감을 만들기 위해서나 면접에서 돌발 질문이 나왔을 때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뷰 내내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신입사원들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필기 시험을 준비할 때 반드시 제한 시간 내에 수기로 답안을 완성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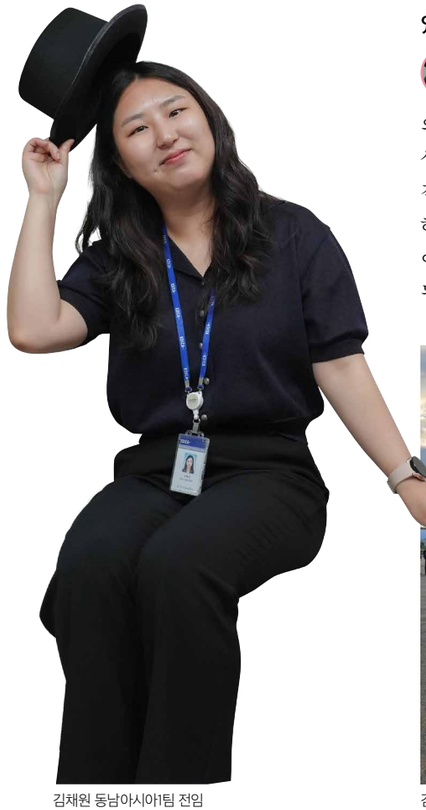
Q 입사를 준비하던 때의 나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진희연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가는 방향이 맞으니 계속 하면 돼.'

김채원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Q 신입사원으로서 알리고 싶은 코이카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김호연 직원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과 경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2외국어 학습 지원, 석·박사 학위 연수 등 프로그램이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 48개국에 있는 해외사무소에 근무하면서 현장을 책임지고 사업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채원 동남아시아팀 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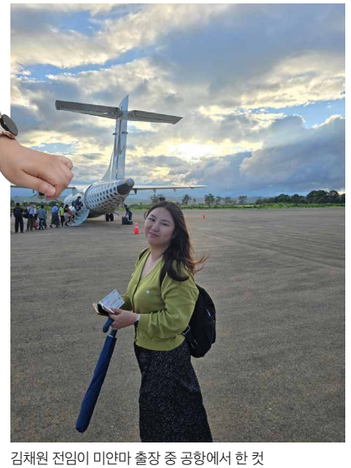
Q 코이카의 일원이 되어 경험한 마법 같은 순간이 있었나요?

진희연 조달팀에서 근무하다 보니 문의 전화에 응대하는 일이 많아요. 처음에는 무척 긴장하고,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을 물어보시니 당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업무를 반복하고 경험이 쌓이면서, 지금은 차분하게 핵심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신감과 정확도가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스스로 성장했다는 걸 느껴요. 그 자체가 마법 같은 순간이에요.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으로서 코이카의 역할이 중요해질 거예요"

Q 코이카가 쌓아온 가치 중 신입사원으로서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진희연 협력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무척 인상 깊어요. 협력국과 소통하면서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개발 효과성을 높이는 코이카의 역할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김채원 전임이 미얀마 출장 중 공항에서 한 컷



정의서 긴급대응팀 전임

만들어가는 코이카의 일원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Q 창립 35주년을 맞은 코이카, 다음 35년의 코이카는 어떤 모습일까요?

김채원 한국 무상원조의 컨트롤타워이자 싱크탱크입니다. 최근 발표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방향처럼 앞으로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 등 다양한 주체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으로서 코이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의서 코이카의 많은 사업이 협력국의 역량 강화, 즉 협력국이 코이카의 지원을 발판 삼아 자립하는 단계를 목표로 합니다. 결국에는 협력국이 코이카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현재의 협력국이 35년 뒤에는 수원국이 아닌 서로 긴밀하게 도움을 주고받는 파트너가 되고, 전 지구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상하는 공동체 일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Q 10년 뒤 코이카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요?

진희연 전문 분야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요. 보건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10년 뒤에는 보건 전문가가 되어 현지 사무소에서 "개인 위생이 중요해요"라며 교육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봤어요.

정의서 인도적 지원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요. 전쟁이나 재난이 완전히 사라지는 세상을 꿈꾸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래도 10년 뒤에는 재난이나 분쟁 등의 리스크가 많이 줄면 좋겠습니다.

김채원 현지 사무소에서 근무할 것 같고요. 그곳이 어느 협력국일지는 모르겠지만, 문화 ODA 사업을 관리하며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연 중동의 한 국가에 부소장으로 파견되어 있을 것 같아요. 현지



김호연 전임이 첫 출장으로 떠난 요르단에서

인과 구분되지 않을 만큼 현지화가 돼 마법 같은 개발협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Q 미래의 신입 고익하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김호연 힘든 터널을 멋지게 통과해 동료로서 이곳에서 반갑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정의서 미래의 신입 고익하 여러분! 우리 같이 힘을 나누고 성장합시다.



김호연
중동팀 전임

신입사원들의 유쾌 상쾌 발랄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QR코드를 통해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은 2020년 12월 설립 이래 2023년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지역에 학교 건립 사업을 펼치는 등 국제사회와 교류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사진은 코이카와 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의 공동연수 당시 모습이다.

아르켄 아리스타노프 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 전 이사장 기고

“우정의 이름으로 개발협력의 길 함께 걷다”



아르켄 아리스타노프
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 전 이사장

중앙아 국가와 협력해 국제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

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Kazakhstan Agenc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이하 KazAID)은 카자흐스탄 외교부 산하 ODA 전담 기관으로, 파트너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KazAID는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들 및 아프가니스탄을 주요 협력 대상으로 삼고 있다. 중점 협력 분야는 보건·디지털화·교육·공공행정·기업가 정신 등이며, 이는 카자흐스탄의 ‘공적개발원조법’에서 규정한 우선 분야를 기반으로 한다.

설립 이후 KazAID는 투명성 보고 체계 구축, 지진 재난 위험 경감,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해왔다. 역량 강화 세미나와 인프라 구축 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2023년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지역 내 학교 건립 사업이 있다. KazAID는 전자정부 시스템 이전 지원과 인도적 지원 활동 등도 수행하고 있다.

2024년에는 ‘도스틱(Dostyk): 디지털화’, ‘도스틱: 외교’, ‘아비센나(Avicenna)*: 보건’ 프로그램을 새롭게 출범했다. 카자흐어로 ‘우정’을 의미하는 ‘도스틱’은 중앙아시아 국가 간 우호와 공동 성장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KazAID는 학생과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아비센나: 보건’ 프로그램과 함께 이동통신사 데이터를 통계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세미나도 운영하고 있다.

* 아비센나(Avicenna)는 중세 이슬람권의 대표 의학자 이븐 시나의 라틴어식 이름으로, 의학과 보건 협력을 상징한다.

기술 협력 범위와 협력 국가 확대할 것

KazAID는 2020년 12월 카자흐스탄 정부가 설립했다. 카자흐스탄 외교 분야에서 ODA는 비교적 최근에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영역인 만큼, 설립 초기에는 해외 및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베이스 마련에 집중했다. 당시만 해도 카자흐스탄 내 많은 정부기관과 민간 부문은 KazAID와 ODA 개념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출범 5년 차를 맞은 KazAID는 그동안 역량 강화 중심의 활동에 주력해왔다. 카자흐스탄이 축적한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기술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인프라 구축 사업 역시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협력 대상도 중앙아시아 밖의 국가들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코이카와 KazAID 협력의 현재와 성과

코이카와 KazAID는 긴밀하고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두 기관의 인연은 KazAID 설립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카자흐스탄 공공 부문 관계자들은 코이카가 주관한 ‘KazAID 설립 준비를 위한 한국 초청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ODA 체계와 개발협력 정책, 그리고 코이카의 전략과 사업 운영 경험을 직접 접할 수 있었다.

이후 두 기관은 2021년 11월 한국에서 ODA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2024년 9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이를 재체결하며 협력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했다.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두 차례의 액션 플랜도 수립했다. 첫 번째 계획은 성공적으로 이행됐으며, 현재는 두 번째 액션플랜을 바탕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파트너 국가의 발전은 물론 KazAID 직원들의 역량 강화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두 기관의 첫 공동 세미나는 2022년 9월 키르기스스탄 공공 부문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행정 디지털화 세미나’였다. 이 행사는 디지털 정책을 담당하는 키르기스스탄 정부 관계자들에게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2025년 들어 두 기관의 협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두 기관은 8월에 ‘중앙아시아 국가의 디지털 전환 및 협력 역량강화’를 주제로 한 3개년 공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또한 ‘도스틱: 외교’ 프로그램에서는 코이카 전문가가 물 관리 프로젝트 추진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KazAID 직원들은 코이카 본부 파견 프로그램과 ‘신흥 공여국 국제개발협력기관 역량강화 및 GPEDC 학습·가속화 프로그램(2025)’에 참여하며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 두 기관은 정기적인 회의와 상호 방문도 지속하고 있다. KazAID는 앞으로도 코이카와의 협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은 코이카와 활발히 교류하며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코이카 신흥 공여국 특별연수’에 참석한 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 직원들의 기념 사진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협력 출발점

카자흐스탄은 국제사회에서 비교적 최근에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로, 현재 국제사회의 모범 사례를 참고하며 자국의 ODA 체계를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과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의 경험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한국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국가이며, 코이카는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개발협력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KazAID는 코이카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경험과 지식을 중앙아시아 지역과 공유하고, 두 나라의 파트너 국가 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공동 사업과 프로젝트 관리 경험 교류는 두 기관 간 협력 수준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KazAID는 앞으로도 코이카와 구축해온 우호적이며 성과 중심의 협력 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전문가들이 중앙아시아 참가자들과 기꺼이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지식과 우수 사례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코이카가 프로젝트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개방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 역시 KazAID의 기관 성장과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 K

김선영 코이카 인도지원처 분쟁취약지원팀 대리(젠더전문관) 기고

분쟁 현장에서 배운 '평화의 의미' 일상의 안도감과 삶을 재건하는 회복력에 대해



김선영 대리(오른쪽 첫 번째)가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소말리주 분쟁지역 이주민 사회적 회복력 구축 지원사업' 모니터링 현장에서 텃밭 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는 모습

나는 다양한 분쟁 취약 지역을 다니며 '평화'라는 가치가 일상의 언어로 존재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다. 소위 분쟁 지역이라 불리는 에티오피아 아파르·오로미아·소말리주에서, 또 요르단에서 만난 시리아 난민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리고 기후위기로 이재민이 대거 발생한 케냐의 이시올로와 투르카나주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평화는 거창한 담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냈다' '가족과 내 가축들이 안전했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안도감이었다.

국경 넘은 이산가족의 아픔:
나이지리아에서 요르단까지

나는 코이카 분쟁취약지원팀 소속으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나이지리아 북동부 3개 주에서 진행한 협력 사업 관리를 통해 분쟁 지역에서 평화가 어떤 가치를 갖는지 생각했다.

코이카는 ICRC와 함께 보코하람 등 무장단체의 장기 활동으로 보건 인프라가 붕괴된 지역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기초 보건서비스 강화와 이산가족 상봉, 사회심리 지원을 제공하며 인도적 지원(Humanitarian)과 개발(Development), 평화(Peace)를 연계하는 전략인 'HDP 넥서스'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 재결합을 통한 심리적 회복의 중요성을 크게 느꼈고, 덕분에 요르단 현장에서도 실종된 가족을 기다리는 이들의 아픔에 더욱 공감할 수 있었다. 특히 2025년 10월, 요르단 사업지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에게 들은 이산가족 이야기는 아직도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다. 이들은 코이카와 ICRC의 협력 사업을 통해 심리적·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나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ICRC는 실종된 가족의 생사 확인을 기다리는 이산가족이 절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해주고 정보를 제공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시리아 난민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공유하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됐다"고 말했다.

한 남성 수혜자는 생계유지의 어려움과 가족 상실의 아픔으로 큰 압박을 느꼈지만, ICRC의 사회·심리적 지원을 통해 '강해야 한다'는 가장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가족들에게 더 부드럽고 이해심 있는 태도로 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는 고통을 공유함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이었다. 실종된 남편과 남동생에 대한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던 한 여성 수혜자 또한 비슷한 경험을 가진 난민들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그룹 세션을 통해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특히 실종된 아버지 이야기를 꺼려했던 어느 여성 수혜자가 그룹 세션을 통해 편안하게 감정을 나눌 수 있게 된 변화는 인상적이었다.

회복력의 씨앗을 뿌리다:
에티오피아 이재민 현장의 능동적 주체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순간은 에티오피아에서 '분쟁 지역 이주민 사회경제적 회복력 구축'을 주제로 국제이주기구(IOM)와 협력 사업을 관리했던 때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대부분 에티오피아의 오로미아·소말리 지역 출신으로, 고향에서 가족을 잃고 오랜 폭력을 겪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었다. 이들은 조산사·상인·교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주민들로 지역사회의 회복을 함께 고민하는 능동적인 주체였다. 특히 소말리 상인들은 "언젠가는 다시 작은 가게라도 열고 싶다"는 소망을 자주 들려줬다. 이재민 마을의 주민들은 스스로 마을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를 논의했고, 그 결과 물탱크 설치, 초등학교 보수와 책걸상 지원 등을 최우선 과제로 결정해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마을 내 갈등 중재와 평화 구축을 위해 여성 평화대사를 선발하고 훈련해, 지역 갈등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나는 한국 NGO 및 성과관리팀과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며 주민들과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 방문 당시, 이재민 마을에는 작은 상점이 새롭게 문을 열었고, 나는 직접 물건을 사보며 주민들이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험으로 나는 이재민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고 공동체를 재건하는 적극적 주체'임을 재차 확인했다. 그리고 개발협력의 역할은 그들의 회복력이 싹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었다.



김선영 대리(오른쪽 두 번째)가 에티오피아 굴숨 지역 여성 평화대사 및 국제이주기구(IOM) 직원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평화 잃고 고향 떠난 이들의 현실:
아픈 순간들

분쟁 취약 지역에서 수행한 사업들은 내게 큰 보람이었다. 하지만 가까웠던 사람들이 정치적 압력과 불안정한 정세로 삶이 완전히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을 때는 몹시 힘들었다. 특히 에티오피아 부소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내가 협력했던 정부 관계자와 파트너들이 잇따라 망명을 선택한 일은 지금도 큰 충격으로 남아 있다. 평화 사업을 착수할 때 기념사를 함께했던 에티오피아 고위급 인사는 결국 정치적 상황 악화로 인해 외국으로 망명했다. 또한 코이카 석사과정을 마치고 돌아와 나와 함께 연수생 동창회를 도맡았던 간부 역시, 종족 갈등으로 정부 등용에서 계속 제외돼 결국 망명했다.

나와 함께 일하며 국가 변화에 기여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결국 정치적 압박과 위협 속에서 평화를 잃고, 자신의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이 나를 괴롭게 했다. 이 경험은 분쟁과 취약성이 얼마나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개발협력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사람의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뚜렷하게 깨닫게 했다. 그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일은 내 커리어 중 가장 아프고 어려운 순간이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 권역 분쟁 상황 성폭력 예방 및 생존자 지원 사업' 성과 관리를 위해 여성 및 여성 청소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김선영 대리

이동하는 삶 속에서 발견한 소명

개발협력 분야 종사자는 결국 '떠나는 사람'이다. 각국의 여러 지역을 계속 이동하는 삶을 산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짧은 시간들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민해 주고 따뜻하게 연락해 주고 반가워해 주는 모든 동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에티오피아에서 본부로 귀임하기 직전, 평소 과묵하던 현지 직원이 "한국과는 전혀 다른 에티오피아에 와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서비스해 줘서 고생 많았고 정말 고마웠다"고 말했다. 그 말이 내게는 오래 남아, 그동안 힘들었던 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현장과 본부에서 계속 체득하고 있는 이 소중한 교훈, 즉 평화가 일상의 안도감이자 보편적 가치이며,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회복력은 싹튼다는 믿음을 기억하며,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한다. K

정승필 코이카 르완다사무소 코디네이터 인터뷰

‘빠니보틀’과 르완다 새마을운동 현장을 가다

코이카 르완다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정승필 코디네이터가 어느 날 뜻밖의 반가운 연락을 받았다. 평소 정말 좋아하는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에게 정 코디네이터가 담당하는 르완다 마을을 탐방할 수 있겠느냐는 제의를 받은 것. 이게 웬일? 연락받은 날부터 밤마다 가슴이 뛰어 잠을 못 이뤘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정승필 코디네이터가 르완다에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며 르완다 국기를 흔들고 있다.

Q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코이카 르완다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승필 코디네이터입니다. 2024년 10월에 이곳으로 파견돼 현재까지 약 1년 8개월간 일하고 있어요. 농업 및 교통 분야 프로젝트와 연수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르완다라는 매력적인 나라에서 한국 직원들, 현지 직원들과 협력하며 보람 있고 만족스러운 해외 근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Q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의 채널에 코이카 르완다사무소와 사업지가 등장했습니다. 그 배경이 궁금해요.

감사하게도 빠니보틀 님 측에서 코이카에 르완다 새마을운동 사업지 촬영을 희망한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빠니보틀 님이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통해 르완다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잘 적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흥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새마을운동 세대는 아니지만, 한국의 개발 경험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는 취지로 코이카에 문의하신 듯합니다. 촬영이 진행된 곳은 르완다 서부주 카모니군에 자리한 무심바 마을로, 2010년부터 새마을재단이 시범 마을사업을 추진해 온 지역입니다.

Q 무심바 마을을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르완다의 다른 코이카 농업 프로젝트는 평균 약 800만 달러 이상의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그중 상당 부분의 예산이 습지 및 경사지 개발과 같은 토지 평탄화 및 관개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에 사용됩니다. 그럼에도 르완다는 ‘천 개의 언덕 나라’로 불릴 정도로 지형이 대부분 산지로 이뤄져 있어, 농업 생산 여건이 다른 국가에 비해 열악한 편입니다. 어려운 환경임에도 카모니 지역의 무심바 마을은 비교적 적은 규모의 사업비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낸 대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핵심 요소였던 소득 증대, 환경 개선, 의식 개선이 균형 있게 이뤄지며 실제 주민 삶의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무심바 마을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인프라 중심의 하드웨어 사업이 아니라, 주민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삶의 변화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는 것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돼 지속 가능한 발전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이러한 접근은 최근 코이카가 강조하고 있는 성과 관리 및 영향 평가 체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무심바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매주 새마을회관에 모여 회의를 진행한다.



정승필 코디네이터가 무심바 마을 어린이와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Q 이번 촬영에서 새마을회관, 유치원, 가판대 인근 시설 등 과거 사업으로 조성된 공간도 함께 둘러보셨는데요. 이 시설들은 현재까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었나요?

무심바 마을의 경우 2010년부터 약 5년간의 사업 기간에 새마을회관, 유치원, 가판대, 창고 등 다양한 인프라 시설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된 시설은 사업 종료 이후 지방정부 또는 수원 부처로 이관되면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무심바 마을의 현장 모니터링 및 인터뷰 결과, 10여 년 전에 지원된 시설들이 현재까지도 매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었어요. 새마을회관은 격주로 마을위원회 회의 및 주민들의 주요 협의 장소로 꾸준히 사용됐습니다. 유치원도 원아 수가 꾸준히 늘며 지역 내 우수 유치원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또한 도로 인근에 자리한 가판대는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공간으로 매일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유치원생들이 착용한 옷과 가방은 과거 새마을사업 당시 진행된 재봉 교육을 받은 마을 부녀자들이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사업 성과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Q 빠니보틀이 현장에서 특히 관심 있게 본 장면이 있는지요?

아무래도 여행 유튜버이다 보니 사업의 세부 내용보다는 시청자들이 공감하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포인트에 더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마을 이장님이 통화하시는 모습을 보고 목소리 톤이나 말투가 한국 이장님이랑 똑같다며 바로 카메라를 급하게 켜던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유치원생들이 등원할 때 입고 있는 옷과 가방 색깔이 새마을기 색상과 비슷한 점도 재미있게 보셨어요.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가운데)이 피코 캐릭터를 들고 코이카 르완다사무소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Q 사업 담당자로서 이번 촬영에서 꼭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빠니보틀 님과 마을회관이나 마을 주민 집에 하룻밤 묵으며, 현지에서 수확한 농산물로 함께 음식도 만들고 먹어보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장님 하루 따라다니기’ ‘이장님 하루 매니저 체험’ 같은 콘텐츠도 기획해 봤고요. 제가 평소 빠니보틀 님 영상을 보면서 아프리카 시골 마을의 일상을 다룬 콘텐츠는 많지 않다고 느꼈고 ‘이건 무조건 최소 200만 조회 수 영상’이라고 확신했는데, 현지 여건상 실제로 진행되지 못한 점이 정말 아쉬웠어요. 그럼에도 이번 촬영을 통해 짧은 시간이나마 르완다 시골 마을의 진짜 모습과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Q 이번 영상을 통해 독자들이 르완다 농촌 현장과 코이카의 농촌개발 사업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 줬으면 하는지요?

무엇보다 영상에 담긴 현장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새마을운동이 때때로 정치적 맥락 속에서 소비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농촌 주민들이 정부와 함께 변화를 만들어낸 중요한 경험이었다는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르완다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농촌개발 사업 역시 특정 이념이나 프레임으로 보기보다 현장에서 주민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K

빠니보틀이 무심바 마을과 함께한 유튜브 영상은 QR 코드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장원삼 이사장 “2026년 통합적 개발협력 실행의 원년으로 삼을 것”

장원삼 코이카 전 이사장이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올해를 ‘통합적 개발협력 실행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장 전 이사장은 “ODA 현장에서 축적된 국제적 신뢰가 대한민국의 외교·경제·안보 역량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전략적·통합적 ODA로 개발 효과성을 높이고 협력국 수요와 한국의 강점을 결합한 미래성장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 전 이사장은 협력국·파트너·국민·정부를 향한 4대 비전으로 ▲협력국의 자립을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의 성장을 견인하는 상생의 개발협력 ▲국민이 체감하고 지지하는 ‘자부심 있는 개발협력’ ▲정부에 성과로 증명하는 신뢰받는 기관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통합적 ODA 추진 체계 혁신과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 재구성, 글로벌 난제 해결 지원 등을 중점 실행 방향으로 내세우고, 무상원조 분절화 해소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공공협력사업 확대도 강조했다. 또한 2026~2030년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토대로 AI·디지털·문화 등 한국의 비교우위를 개발 성과로 연결하는 전략적 ODA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코이카 AX 역량 강화 성과공유회 개최

인공지능(AI)이 교육·보건·행정 등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도구로 떠오르는 가운데, 코이카가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넘어 K-ODA(한국형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모두의 AI’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이카는 지난 1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2025 코이카 AX 역량 강화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행사는 ▲한국 AI 기업 창업자 명사 특강 ▲2025년 AX 종합 성과 영상 공개 및 발표 ▲AI 아이디어톤 경진대회 우수팀 사례 발표 및 전시 부스 운영 ▲질의응답 세션 등으로 다채롭게 운영됐다. 장원삼 전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은 코이카의 핵심 과제”라며 “글로벌 AI 기본 사회 실현이라는 국가적 전략에 발맞춰 코이카는 AI 기술을 국제개발협력에 접목해 AI, 디지털, 문화(K-Culture) 등 한국의 비교우위를 상생의 개발 성과로 연결하는 전략적 ODA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에서 꽃피운 ‘K-복원’

코이카가 지난 1월 16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 프레아피투 사원과 코끼리테라스 보존·복원 2차 사업’ 성과 공유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1월 말 종료 예정인 ‘앙코르 유적 보존·복원 2차 사업’의 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분야 ODA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캄보디아 간 문화유산 협력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이카는 2014년 앙코르 유적 복원에 처음 참여한 이후, 2019년부터 2차 사업으로 협력을 확대했다. 2차 사업에서 코이카는 ▲프레아피투 사원군과 코끼리테라스의 보존·복원 ▲압사라청 연구원 및 직원 역량 강화 ▲고성능 석재 가공·분석·실험 장비 등을 지원했다. 이번 성과 공유는 코이카가 문화유산 분야를 핵심 축으로 글로벌 ODA 통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코이카는 앞으로 문화유산 보존을 매개로 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문화 ODA를 통한 국제 연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K-마이스터고’ 노하우, 인도 대륙에 전수한다

코이카가 지난 1월 20일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 보팔에서 ‘인도 직업기술교육 역량강화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한-인도 TVET 협력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사업은 한국 정부가 인도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최초의 양자 협력 프로젝트형 ODA다. 이 사업은 인도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으로 늘어난 제조업 숙련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코이카는 2027년까지 보팔 지역 다목적 시범학교(DMS)를 중심으로 메카트로닉스 직업교육 훈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인도 국가자격체계(NSQF) 기반 메카트로닉스 교육과정 승인 자문 ▲교재·지도서 개발 ▲CNC·PLC 실습장비 포함 41종 기자재 지원 ▲정책결정자·교사 한국 초청 연수 등이다. 특히 코이카는 한국형 마이스터고 모델을 벤치마킹해 교사 실기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2026년 2월



장원삼 이사장, 동티모르·라오스 순방

장원삼 전 이사장이 지난 2월 1일부터 8일까지 동티모르와 라오스를 방문해 주요 ODA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아세안 협력국과의 파트너십 강화에 나섰다. 장 전 이사장은 3일 동티모르 수도 딜리에서 ‘한-동티모르 친선 스포츠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스포츠를 통한 아동·청소년 발달과 문화 교류 확대 의지를 밝혔다. 또한 카이 랄라 사나나 구스망 총리와 만나 코이카의 대(對) 동티모르 협력사업의 성과를 논의하고, 동티모르와 유사한 역사를 겪은 한국의 발전 경험을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동티모르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6일에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짠사몬 짜날랏 부총리를 만나 중장기 개발협력 방향과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바이캄 카띠야 보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보건 ODA 성과와 향후 질적 고도화 방안을 협의했다. 장 전 이사장은 7일 코이카 지원으로 2011년 비엔티안에 개원한 라오스 최초이자 유일한 3차 아동전문병원인 ‘한-라 아동병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의료인력 역량강화 지원 성과를 점검했다.



올해 첫 석·박사 학위연수사업 시작

코이카가 교육을 통한 인적 교류 확대와 협력국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2026년 학위연수사업을 본격 가동했다. 코이카는 지난 1월 23일 경기도 성남시 연수센터에서 가나, 몽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3명의 박사과정, 20명의 석사과정 연수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올해 학위연수사업에는 총 1,048명의 연수생이 참여했다. 코이카는 1997년 학위연수사업을 시작한 이후 95개국에서 6,500여 명의 인재를 배출해 왔다. 특히 2020년 도입된 박사 학위연수사업은 협력국의 고급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코이카는 ‘이음(IEM)-씨앗(CIAT)’ 통합 연수 브랜드를 통해 연수 이후 네트워킹과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성과 확산을 돕고 있다. 한편 코이카는 올해 석사 31개, 박사 16개 과정 운영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제조공학 등 미래 산업 분야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엘살바도르에 ‘국립보건교육센터’ 완공

코이카가 ‘엘살바도르 국립보건교육센터 설립 및 보건교육 강화사업’을 통해 수도 산살바도르 국립병원 부지 내에 현지 최초의 보건의료 전문 교육시설인 ‘국립보건교육센터(CENES·Centro Nacional de Especialización en Salud)’를 완공하고 지난 1월 29일(현지시간) 준공식을 개최했다. 국립보건교육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2,246㎡ 규모로 지어져 진료 현장과 연계한 실습 중심 교육이 가능하다. 또한 응급·외상 처치 교육 기자재 51종과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디지털 보건 혁신’의 기틀을 마련했다. 코이카는 중장기 운영 마스터플랜(2026~2030) 수립도 지원해 국제 보건교육 거점으로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보건 인력 부족과 교육 인프라 한계를 겪어온 엘살바도르의 의료체계 개선은 물론, 한국 보건의료 모델에 대한 신뢰 제고와 향후 K-의료 해외 진출 기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코이카는 지난 2월 11일 산살바도르 보건부 응급의료시스템 본부에서 보건 차량 18대를 기증하기도 했다. 기증된 차량은 산간지역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의료 접근성 제고에 활용될 예정이다.



코이카 피코프렌즈, ‘K-일러스트레이션페어 서울 2026’ 참여

코이카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K-일러스트레이션페어 서울 2026’에 참가해 소통 캐릭터 ‘피코프렌즈’ 부스를 운영하며 약 5,400명의 관람객과 만났다. 이번 부스는 ODA의 가치를 친숙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시존에서는 캐릭터 세계관과 글로벌 활동을 영상으로 소개했고, 참여존에서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리듬게임 챌린지’가 큰 호응을 얻으며 현장 분위기를 이끌었다. ODA 퀴즈와 팀플 유형 테스트 등 참여형 이벤트도 관람객의 관심을 모았다. 한정판 굿즈와 협력국 간식은 조기 소진될 만큼 인기를 끌었다. 관람객들은 캐릭터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피코프렌즈는 캐릭터 어워즈 대상 수상과 이모티콘 완판 등으로 팬덤을 형성해 왔다. 코이카는 이번 참여를 계기로 온·오프라인 소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코이카 개발협력전시관, 맞춤형 교육·체험 운영

코이카가 지난 2월 23~28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개발협력전시관에서 청소년과 가족 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ODA 월드투어’를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교육 프로그램 ▲체험 미션 ▲부대 프로그램 및 현장 이벤트로 구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케냐 감자 농부 이야기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감자 고승도치’를 만드는 ‘감자합니다’(가족 대상)와, 아이티 소년 세바스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업사이클링 레고 버스를 만들어보는 ‘버스 왔어요’(초등 대상)가 운영됐다.

2026년 3월



코이카-시민사회 공동 워킹그룹 출범

코이카가 지난 3월 6일 서울 여의도 월드비전 본사 대강당에서 '제1기 코이카-시민사회 공동 워킹그룹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 워킹그룹은 코이카의 대표적인 민관협력 ODA 사업인 '시민사회협력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 단계의 주제 선정부터 향후 실행 과제 채택까지 전 과정을 코이카와 파트너 기관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원팀(Team)' 파트너십을 구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워킹그룹은 기존 '민관협력 정례협의회'를 개편한 것으로, 단순 의견 수렴을 넘어 의제 선정과 실행 과제를 직접 채택할 수 있는 주도적 권한을 갖는다. 1기 워킹그룹에는 코이카와 코웍스, 세이브더칠드런 등 총 12개 기관, 40명의 실무진이 참여해 10월까지 활동한다.



2025 앤어워드 '은빛 3관왕' 쾌거

코이카가 지난 2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앤어워드'에서 자체 제작 영상 콘텐츠로 총 3개의 실버상을 받으며 '3관왕'을 달성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앤어워드는 (사)한국디지털기업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권위 있는 연례 디지털 시상식이다. 코이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올해는 웹드라마 '개발남녀 시즌2'가 영상 콘텐츠 부문에서, '중앙아시아 ODA 사업 홍보영상(The Wind of KOICA)'이 영상 콘텐츠 부문과 공공기관 부문에서 각각 수상했다.



'2026년 개발협력 참여전략 설명회' 개최

코이카가 지난 3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2026년 개발협력 참여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종합기본계획에서 '성과에 기반한 K-ODA'가 핵심 비전으로 제시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ODA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이카는 우량 파트너사의 현지화 비즈니스 모델 구축부터 사업 수행 역량 강화까지 단계별 경험을 소개했다. 또한 코이카 ODA 사업 조달, 기업협력 프로그램, EDCF 사업, 해외 발주처 참여 방안 등의 세션을 진행했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다자개발은행(MDB), 국제기구를 통한 사업 참여 방안과 실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성과 사례도 공유했다.



콜롬비아에서 마약 대체작물 고영양 에너지바 출시

코이카가 콜롬비아에서 마약 대체작물을 활용한 고영양 식품을 출시했다. 코이카는 2020년부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함께 코카 재배 의존도가 높은 푸투마요주에서 사차인치(Sacha Inchi)를 대체작물로 상업화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사차인치를 활용한 시리얼바 '사차 에너지(Sacha Energy)'를 개발하고, 지난 3월 3일 출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제품은 생산·가공·유통을 잇는 통합 가치사슬 기반으로 개발된 결과물이다. 코이카는 7개 시·군 700개 농가에 재배 기반을 조성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농가 월평균 소득은 약 50만 페소에서 120만 페소로 증가했다. '사차 에너지' 시리얼바는 콜롬비아 내 대형마트 입점과 함께 유럽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캄보디아 국립어린이병원 '제2 한-캄 친선 병동' 착공

코이카가 지난 3월 6일 캄보디아 프놈펜 국립어린이병원에서 '제2 캄보디아-한국 우호 병동(내과계 병동)' 착공식을 개최했다. 신축 병동은 연면적 9,053㎡, 지상 5층, 188병상 규모로 조성되며 소아 혈액종양, 신경과, 호흡기 등 7대 전문 분야 진료공간과 내시경실 등 전문 진단시설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중증 소아 환자에 대한 캄보디아 내 치료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 친선병동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된 국립소아병원 기능개선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 중증 내과 분야까지 협력을 확장하는 단계다. 공사는 약 27개월간 진행되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2026년 4월



코이카-프랑스개발청, 국제개발협력 분야 파트너십 강화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코이카와 프랑스개발청(AFD) 그룹이 국제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코이카는 지난 4월 3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체결식을 열고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졌다. 양 기관은 2029년까지 기후, 재난, 인프라, 디지털, 식량 안보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한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 프로젝트 발굴과 수행을 중심으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연 1회 고위급 회의와 정기 실무 협의를 통해 성과를 관리한다. AFD 그룹은 1941년 설립된 프랑스의 핵심 개발금융기관으로 공공·민간·기술협력을 아우른다. 양 기관은 2012년 첫 MOU 체결 이후 모로코 자동차직업훈련원 지원, 코트디부아르 상수도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페루서 중남미 최초 K-조선 기업협력 ODA 착수

코이카와 HD현대중공업이 협력해 페루를 거점으로 조선산업 기술과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코이카는 지난 4월 6일 페루 생산부와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사업' 착수식을 열고 ODA 사업을 본격화했다. 사업은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민관협력 ODA 모델로, 공공과 민간이 예산을 절반씩 분담한다. 총 3년간 약 30억 원이 투입되며, 조선산업 교육과 기술 전수가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직무 교육 교재 개발, 기술 인력 역량 강화, 생산·품질 관리 기술 향상, 정부 간 파트너십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180명의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18개 현지 기업에 기술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페루는 긴 해안선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조선산업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착수식에는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한국 연수를 앞둔 페루 연수생들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2026년 리턴프로그램 약정체결식 개최… 10개 창업팀 공식 출범

코이카가 2019년부터 '리턴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자는 해외 경험 이후 국내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창업할 수 있다. 리턴프로그램은 단순 아이디어 지원을 넘어 사업화와 성장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44개 팀이 지원받았고, 이 중 22개 팀이 창업에 성공해 고용 253명을 창출하며 신규 창업률 64%를 기록했다. 코이카는 올해부터 리턴프로그램을 예비·초기·도약 단계로 이어지는 구조로 개편하고, 기존 참여 팀을 위한 '계속지원팀'을 신설해 우수 사례가 지속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코이카는 지난 4월 7일 경기 성남시 코이카 본부 대강당에서 '2026년 리턴프로그램 약정체결식'을 열고 10개 팀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참가팀들이 만나 서로를 알아가고 교류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또한 앞서 리턴프로그램을 경험한 펠로우십 기업도 함께 참여해 생생한 조언을 전했다.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통합적 교육환경 개선 사업 종료

코이카가 유니세프, 팔레스타인 교육부와 함께 추진한 '서안지구 통합적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지난 4월 20일 종료식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2021년부터 2026년 3월까지 진행된 이 사업은 분쟁과 열악한 환경 속 아동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목표로 했다. 5년간 70개 학교에서 교실 리모델링, 위생시설 개선,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실습실 설치가 이뤄져 약 2만 명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장 500명, 장학사 62명 대상 연수와 현지 강사 양성(ToT) 방식의 교사 양성을 통해 교육 역량을 강화했다.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100개 학교에 운영위원회와 행동 계획을 도입하고, 18회의 학생 주도 캠페인을 진행했다. 위생 분야에서도 6,500개의 키트를 지원해 지역사회 인식을 높였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 내 모니터링·평가(M&E) 시스템 구축과 STEM 로드맵 마련으로 정책과 현장 전반의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2026년 5월



‘2026 코이카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코이카가 지난 5월 7일 ‘2026 코이카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현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등 10개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해 취업 전략과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설명회는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동시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과 다자협력전문가(KMCO) 사업 참여 방법을 소개했다. 두 프로그램은 국제기구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진출 경로로 꼽힌다. 세션 2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귀국 인재를 대상으로 코이카 국제기구 협력사업 한국인 채용 제도를 설명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UNV 대학생 봉사단과 KMCO 참여자를 위한 홈커밍데이도 함께 열려 귀국 인재들의 경험 공유와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콜롬비아 개발협력청과 삼각협력 허브 구축 위한 MOU 체결

코이카가 지난 5월 6일(현지시각) 콜롬비아 개발협력청(APC Colombia)과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한국-콜롬비아 삼각협력 허브’ 구축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두 나라가 보유한 개발협력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중남미 및 카리브해 제3국을 대상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해 나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디지털 거버넌스 ▲기후 환경 ▲산업·혁신·스타트업 ▲농업·지역 개발 등이다. 두 기관은 각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과 재정을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며, 우선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공동 발굴·조정·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에 따라 코이카는 기존 프로젝트 사업과 신규 연수사업 등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삼각협력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콜롬비아 개발협력청과 협의해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파키스탄 국립섬유대학 내 ‘한-파 산업용 섬유센터’ 착공식 개최

코이카가 지난 5월 14일(현지시각) 파키스탄 파이살라바드 국립섬유대학(NTU)에서 ‘한-파 산업용 섬유센터(PKTC)’ 착공식을 개최했다. 코이카는 2022~2028년에 총 795만 달러 규모의 ‘국립섬유대학 산업용 섬유센터 설립 2차 사업’을 실시해 파키스탄 섬유산업의 고도화와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파키스탄 섬유산업은 국가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글로벌 경쟁 심화와 연구개발(R&D) 인프라 부족 등으로 산업용 섬유 전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착공한 산업용 섬유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실험동과 강의동, 복합 부직포 제조 설비를 갖췄으며 연구·교육 기능을 함께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용 섬유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착공식에는 연제호 코이카 파키스탄사무소장과 라시드 마수드 파키스탄 국립섬유대학 총장 등이 참석해 양국 간 산업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튀르키예 개발협력청과 공동 연수 시행

코이카와 튀르키예 개발협력청(TIKA)이 지난 5월 12~16일(현지시각) 타지키스탄 두샨베 국립관광대학교에서 ‘관광 교육의 현대적 접근 방법’을 주제로 공동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관광 성장 잠재력이 큰 타지키스탄의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이카는 K-관광 성장 과정과 최신 관광 트렌드, 관광 교육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 음식 조리 실습도 진행했다. TIKA 역시 튀르키예의 관광산업 육성 경험과 직업 교육 노하우를 공유했다. 연수에는 국립관광대학교 교수와 직업훈련센터 교원, 관광업계 종사자 등 86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관광 교육 과정 구성과 산업의 경제·고용 효과 등을 배우며 타지키스탄 실정에 맞는 관광 교육 모델을 모색했다. 코이카는 이번 연수 결과를 경제 개발과 일자리 창출 사업에 활용하고, 한국 관광 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코이카-LG전자-UNDP, ‘청년 대상 기술훈련 허브’ 조성

코이카와 LG전자, 유엔개발계획(UNDP)이 소말리아 청년 대상 직업 기술훈련 협력을 강화한다. LG전자와 UNDP는 지난 5월 15일(현지시각) ‘소말리아 청년 기술훈련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이카의 ‘아프리카 권역 평화 구축 및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사업’과 연계해 모가디슈 청년들에게 전기전자·IT 직업훈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에티오피아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 모델을 소말리아에 처음 적용하는 사례다. 모가디슈에는 LG전자의 제품과 장비를 활용한 실습형 기술훈련 허브가 조성되며, 전자·가전 수리와 IT·네트워킹, 취·창업 역량 강화 교육이 운영된다. 에티오피아에서 인증 교육을 받은 소말리아 강사진이 직접 교육을 맡아 현지화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졸업생들은 수리기사와 서비스 직원 등으로 채용되거나 관련 분야 창업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안정, ICT 서비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6월



미얀마 카친주 국내실향민 귀환·정착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코이카 미얀마사무소가 지난 6월 2일 양곤 파크로얄 호텔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미얀마 카친주 국내실향민 귀환 및 정착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2024년부터 2년간 추진된 이 사업은 장기 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국내실향민(IDPs)의 안전한 귀환과 재정착, 지역사회의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사업을 통해 ▲주거시설 지원 ▲지역사회 기반시설 개선 ▲생계 지원 ▲주택·토지·재산(HLP) 법률 서비스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UNHCR의 ‘미얀마 전환적 해결지원(Transitional Solutions)’ 최초 시범사업으로, UNHCR과 UNFPA가 협력해 인도주의·개발·평화(HDP Nexus)의 접근을 현장에서 구현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26 상반기 코이카 해외봉사단 정기설명회 개최

코이카가 지난 6월 5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6년 상반기 해외봉사단 정기설명회 ‘KOICA-CINEMA’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영화관 콘셉트로 꾸며져 참가자들이 해외봉사단 활동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스탬프 투어형 체험존과 포토존을 둘러보고, 선배 단원들의 활동 영상을 감상했다. 이어진 모집설명회에서는 2026년 해외봉사단 모집 변경 사항과 지원 절차가 소개됐으며, 커리어 콘서트에서는 귀국 단원과 사업 담당자가 현지 활동 경험과 진로 사례를 공유했다. 일대일 상담·컨설팅 부스와 커피챗 프로그램이 운영돼 예비 지원자와 선배 단원 간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 한 참가자는 “해외봉사단 활동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었고, 도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외교장관과 양자회담 실시

코이카가 지난 6월 1일 ‘2026 한-아프리카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프리카 10개국 외교장관들과 연쇄 양자회담을 개최해 그간의 아프리카 ODA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아프리카를 단순한 원조 수혜국이 아닌 글로벌 복합위기를 함께 해결할 핵심 파트너로 규정하고, 상생 기반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석화 코이카 지역사업II본부 이사는 탄자니아·이집트·튀니지 외교장관과 만나 물 관리, 보건, 교육, 교통, 디지털 전환, 청년 인재 양성, ICT 산업인력 양성 등 분야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코이카는 또 케냐 외교부와 주재국 약정(Host Country Arrangement)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2014년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토대로 체결됐으며, 확대된 개발협력 규모와 현지 사업 환경 변화를 반영해 케냐 내 코이카의 법적 권한과 활동 범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영아 신임 상임이사 선임

코이카가 지난 6월 12일, 도영아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객원교수를 신임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도영아 이사는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이화여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연세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4월 코이카 창립 멤버로 입사한 이래 2024년까지 33년간 동아프리카실장, 방글라데시 및 에티오피아 해외사무소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도 이사는 앞으로 코이카 지역사업III본부장으로 아프리카실·중남미실·유라시아중동실·대외협력총괄실 업무를 총괄한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서,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코이카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이카 네팔사무소, 네팔 국제평화상 수상

코이카 네팔사무소가 지난 6월 8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딜리 라만 레그미 국제평화상 2026(Dr. Dilli Raman Regmi International Peace Award 2026)’에서 국제평화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평화 증진과 국제협력, 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에 수여하는 네팔의 대표적인 국제평화상이다. 코이카는 평화 구축과 국가 역량 강화,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지원, 기술교육 확대 등 네팔의 지속 가능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코이카의 장기적인 네팔 개발협력 성과와 현지 파트너십을 네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시상식에는 공무헌 코이카 네팔사무소장이 참석해 상을 받았으며, 사스밋 포카렐(Sasmit Pokharel) 네팔 교육체육부 장관이 상장과 공로패를 수여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통합 ODA'를 향해

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

국제 개발협력의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분쟁,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식량 및 에너지 안보 문제 등 복합적인 글로벌 도전 과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영향은 개발도상국에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사회의 개발 재원은 점차 제한되고 있어 이제는 얼마나 많은 원조를 제공하느냐를 넘어 얼마나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협력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성장을 일궈낸 국가로서, 이제는 그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 국격에 걸맞은 더 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ODA 역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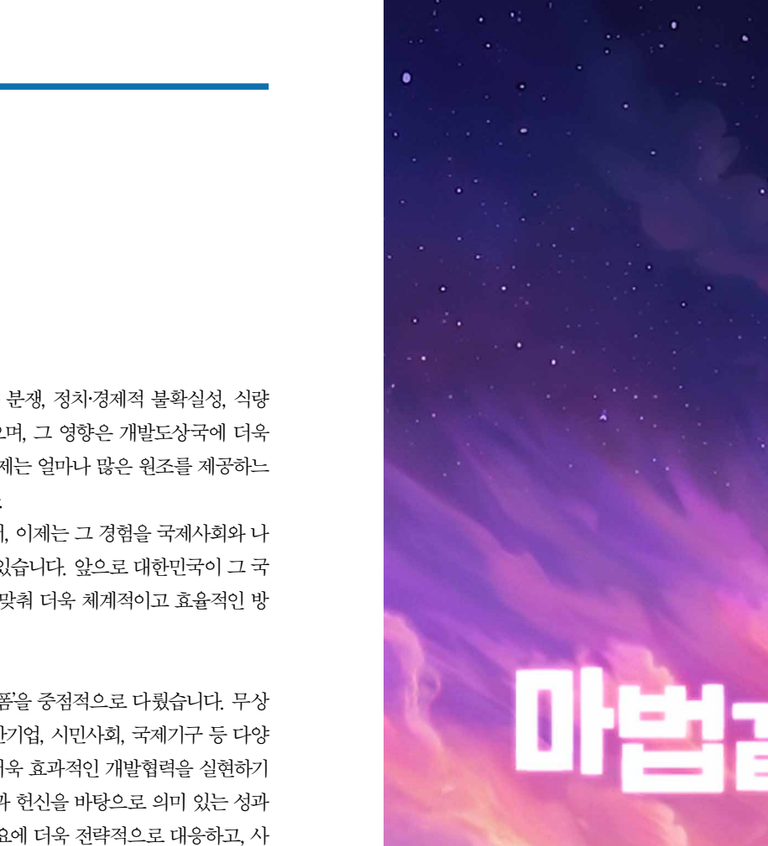
이러한 고민 속에서 <MAGAZINE KOICA> 이번 호에서는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은 단순한 행정 시스템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이 보유한 정보와 경험, 전문성을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기반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무상원조는 각 기관의 전문성과 헌신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강점을 더욱 유기적으로 연결해 협력국의 수요에 더욱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며,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시점입니다.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은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커버스토리에서는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이 왜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구축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ODA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또한 플랫폼이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고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을 넘어, 개발협력의 성과를 높이고 협력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이 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조명했습니다.

코이카는 대한민국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 시민사회, 학계,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며 각 주체의 강점이 통합된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개발 경험이 그러했듯, 발전은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서로를 연결하고 협력할 때 더 큰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 역시 이러한 협력의 가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ODA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MAGAZINE KOICA> 이번 호에서 다룬 내용이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개발협력 생태계 안팎에서 코이카와 협력 파트너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소중한 성과와 경험을 다양한 콘텐츠로 담았습니다. 유익하게 읽어주시면 기쁘겠습니다.
코이카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직무대행



드림

등록일자 2026년 8월 5일
발간등록번호 홍보 2026-03-236
발행일 2026년 8월 5일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전화 1588-0434
팩스 031-740-0260
홈페이지 www.koica.go.kr

기획·편집 한국국제협력단 홍보실
제작 (주)조선뉴스프레스
인쇄 타라티피에스

MAGAZINE KOICA
2026 VOL.9

Download **MAGAZINE KOICA**

홍보자료
홍보 2026-03-236

이제 MAGAZINE KOICA를
AI 오디오 매거진으로도
만나보세요!